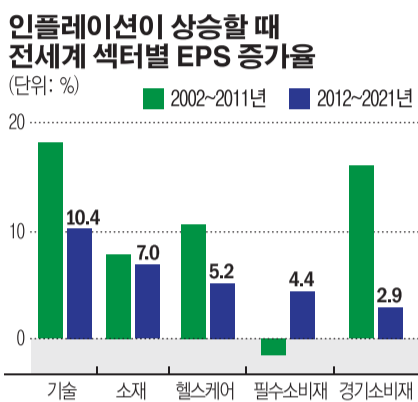


'집합금지 완화' 첫날, 상봉의 기쁨 4



## 인플레이션 공포 테크株는 웃는다

과거 물가상승엔 경기민감株 ↑  
전문가 "4차산업·IT수요급증에  
先조정된 기술株 실적상승할 것"



올해 주가 흐름은 기술주가 조정받고 있지만, 최근 10년 인플레이션 기간 기술주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금리가 상승했을 때에는 철강·화학·정유 등 경기민감주 실적이 좋았지만, 이제는 4차 산업 등 기술주 부각으로 글로벌 산업지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일 이투데이가 하나금융투자에서 낸 '두려움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끝을 낼까' 보고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2~2020년 사이 기대인플레이션율(BEI·Breakeven Inflation Rate)이 상승한 해의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테크 분야가 10.4%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연평균 주가 상승률도 25.6%로 테크 분야가 압도적이었다.

이 기간 업종별 EPS 증가율은 △소재 7.0% △금융 3.8% △경기소비재 2.9% △유틸리티 1.6% △산업재 0.9% △에너지 -1.5% 등이었다. 평균 주가 상승률은 경기소비재(17.7%) 소재(15.8%) 산업재(13.9%) 금융(13.1%) 순이었다.

기대인플레이션율(BEI)은 명목 국내 수익률에서 물가연동 국내 수익률을 뺀 것으로,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가능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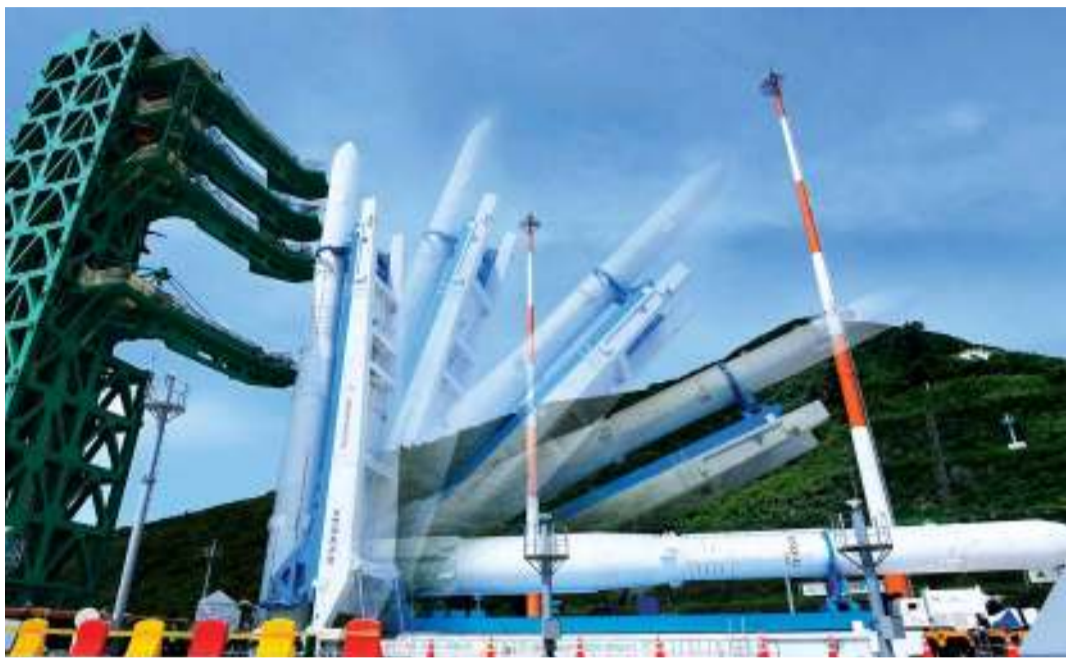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과거와 달리 최근(2012~2020년) BEI 상

승 국면에서는 테크 업종의 EPS 또는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제조업 구매물가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국내와 같이 원자재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부품 수요가 급증했다. 애플·삼성전자 등과 같은 기업의 이익증가율이 급증하는 등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받는 업종도 과거(경기민감업종)와 달라진 것이다.

은행·정유·철강 업종은 금리 상승기에 '투자 피난처'로서 손색이 없다는 게 증권가 평가다. 시장금리 상승과 실물경기 호전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이들 업종이 글로벌 긴축 국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더 큰 상황에서 원가를 판가로 전가할 수 있는 철강, 정유, 화학 등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인아 기자 ljh@·조성진 기자 csjjin2002@



순수 국내기술로 만든 우주로켓 발사체 '위웅'

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0월 첫 발사를 위한 발사대 인증시험에 착수했다. 인증시험은 발사체 이송부터 기립까지 모든 운용 절차를 평가하는 것으로, 발사 전 성능검증 시험과 함께 진행되는 필수 평가 과정이다. 누리호를 비롯해 제2발사대의 모든 설비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7번째로 발사체 기술 보유국으로 등극한다. (니콘 D5, 셔터 1/400s, 조리개 11f, ISO 200, 인터벌 촬영 후 레이어 합성) ▶관련기사 14면  
고흥=신태현 기자 holjjak@

## 민관합동 '수소경제 종합포털' 구축

수소 사업 관련 정보를 망라한 서비스·통계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수소 경제 실현을 앞두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일 이투데이가 취재 결과 국내 수소산업진흥전담민관합동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수소 경제 종합정보포털과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소 경제 종합정보포털 시스템에서는 수소 충전소에 대한 실시간 판매 정보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밖에 수소 전문기업을 확인하고 전문가 인력을 관리하는 기능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산업 통계시스템은 수소 사업 관련 통계와 표준인증 기능, 데이터 제공 기능 등을 제공한다. 연말까지 해당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산업 생태 조성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소 경제 활성화와 대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수소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수소 경제 사회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관련 부처와 기관, 업체 역량을 결집해 제도 개선과 수소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 '뛰어봤자 개미' 外人 수익률 10분의 1

'시세차익' 쫓는 개인 3% 오를 때 '가치투자' 외국인인 30% 올라

"이러다 '벼락거지'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모(35·여) 씨는 남들과 다른 '전업주부'의 삶을 꿈꿨다. 지난해 11월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박 씨는 지인들과 '주린이투자클럽'에 가입하고 함께 주식을 공부했다. 자신감이 붙자 지난해 말 5000만 원의 종잣돈으로 코스피 기업 3~4곳에 톡 큰 베팅을 했다. 하지만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4%다.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불안이 자리 잡았다.

1일 이투데이가 올해 들어 5월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지난해 말 대비 5월 31일 주가)을 분석한 결과 3.04%였다. 2018년, 2019년(각각 -14.8%, -20.0%)과 비교하면 올해는 성적이 좋은 편이다.

큰손들과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수익률은 30.04%(수익률 500% 이상 과열 종목 제외)로 개인을 크게 앞섰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잘 못 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개인

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텔레콤이었는데, 이 기간 이 종목의 추정 평균매도가 대비 5월 31일 주가는 3만9665원 올랐다. 수익률은 14.30%였다.

KB금융(+15.46%), 신한지주(+15.96%) 등 매도 2, 3위 종목의 주가도 모두 상승했다. 손해를 보고 판 셈이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인 삼성전자의 수익률(추정 평균매수가격)은 -3.75%였다. 2~5위인 삼성전자우(-3.29%), SK하이닉스(-1.28%), 현대모비스(-9.53%), 삼성SDI(-7.32%)의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개인의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장기투자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스펙주의 이상 급등이나 우선주 과열 현상처럼 소문을 따라 주가가 급격히 오르는 종목을 추종 매매했다가 고점에 몰려 손실을 보는 '썰림 현상'도 여전하다. 지난달 21일 2105원(종가) 하던 삼성스펙4호는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후 거래 정지됐다.

손은지 기자 eom@

### 내 가게가 전부인 당신이기에 내 가게에서 모두 가능해지도록

**i-ONE 소상공인**

**i-ONE 소상공인 | 오직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금융플랫폼**  
기업·개인 통합뱅킹부터 전문가의 사업정보까지 앱 하나로 누리세요!

**기업·개인 통합뱅킹**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통합 계좌 관리

**대출·기간연장**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연장 신청 (단, 개별 SMS 통지 방식에 한함)

**전문적인 사업정보**  
소상공인 맞춤 전문 지식과 정책자금 정보 제공

**경영 지원**  
세무, 직원 및 거래처 관리 등 효율적 경영 업무 지원

초저금리대출 기간연장 하고 다양한 혜택 받기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1185호(2021.03.25) 게시기한: 2022.03.24 · 통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 명칭 시 이에 대해 연도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연차별로 알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금융민원(국민연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당局的 받지 않습니다. 올바른 경영을 위한 사상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 “2030 거부 모습에 黨이 굉장히 역행하는 느낌 받았다”

## 인터뷰

### 국민의힘 당대표 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한 이준석 후보가 하지 않은 세 가지가 있다. ‘선거’ 하면 으레 볼 수 있는 캠프를 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접객도 지양한다. 그 흔한 단체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이 후보는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는 중요한 본질을 건드려야 하는데, 캠프 열고 접객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쓰고 선거 외적인 요소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단체문자도 보내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1등하지 않았느냐”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최근 보궐선거에서 표심이 어디로 향했는지 명확히 보여준 20·30세대 문제 등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이슈를 공감하고 다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실 이 후보가 애초부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나설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출마 결심을 한 시점은 불과 한두 달 전이다. 이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표를 많이 받았음에도 결과 분석을

세대갈등 봉합 구도 만들어야 이젠 지역구도로 대선 못 이겨 조직 정치도 쉽지 않은 상황 2030 이슈 공감하고 다뤄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2030 어젠다를 정치권에서 다루거나 세대분열(분합)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같은 인식이 전혀 없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오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해왔던 지역구도로 가서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영남, 수도권 선전이 우리의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전략이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보궐선거를 전후로 2030의 니즈가 극에 달한 시점에 이 후보가 던지는 메시지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고 그의 당권 도전은 시의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이 후보는 본인이 ‘젊어진(젊은 정치인) 돌풍’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10년 가까이 정치, 방송 활동을 하면



조현호 기자 hyunho@

여러 상황에서 관점을 드러냈으며 이것이 국민에게 각인이 된 것 같다. 적어도 이준석은 이슈를 피해 다니지 않는다는 점을 공감하는 것 같다”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공감형 정치, 소통형 정치가 이젠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국민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연설문, 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도 직접 작성한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다. 그는 “정치는 필설로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잘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인의 확고한 의지와 메시지가 여론의 지지까지 받다 보니 그의 자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다가오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당심 영향력이 70%로 훨씬 커지는 상황 역시 두렵지 않다. 오히려 승리 기대감도 엿보인다.

그는 “현재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있지만, 당심은 조금 느리게 반응할 뿐이다.

정치에 고도로 훈련된 당원들이라 느끼게 나타나는 것이지 당심이든 민심이든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다”며 최근 현장에서 느낀 열띤 민심·당심을 회상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당대표 후보의 하향식 부탁 관례는 고리가 끊어진 것 같다”며 “누구나 스마트폰을 접하고 유튜브로 연설을 보는 상황에서 조직 정치도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의 ‘원내 경험과 연륜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불식시키는 사례를 들며 일축했다. 이 후보는 “범여권·야권 1위 후보 둘 다 원내경험이 없으며 노무현(1.5선), 이명박(1.5선), 문재인(1선) 등 역대 대통령 역시 경험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30대 이 후보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되면 ‘말을 많이 하는 소통 정당’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수많은 의견이 소통돼야 하며,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 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 역시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리그에 뛰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n@

## 막 나가는 日, 이번엔 욱일기 올림픽 유니폼

### 정부, 日공사 초치·강력 항의

일본이 도쿄 올림픽 개최 준비 과정에서 우익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에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지도를 게재하더니, 이번에는 올림픽 출전 골프팀 유니폼(사진)에 욱일기의 상징을 그려 넣어 논란을 사고 있다.

1일 NHK는 “이번 골프 대표팀 선수가 착용하는 유니폼은 바다와 벚꽃 등 일본의 자연을 이미지화한 디자인”이라며 “유니폼은 총 5가지 종류로 모두 해 뜨는 나라를 나타내는 비스듬한 선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



했다. 이어 “일장기의 빨강이나 흰색, 바다와 벚꽃 등 일본의 자연을 표현한 파랑이나 분홍색의 색깔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태양을 중심으로 햇살이 사방팔방 뻗어나가는 빗살 모양이 바로 ‘욱일(旭日)’을 상징하는 문양이라는 점이다. 욱일기는 태평양전쟁 당시 주변국에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준 일본군의 군기로 사용됐다. 즉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용된 ‘전범기’인 것이다. 현재까지도 일본 극우단체가 혐한 시위 등에서 이 욱일기를 사용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 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 ‘통큰 기부’

### 민사고 등에 2000억

KCC는 고(故) 정상영 명예회장의 유산 중 2000억 원 상당의 주식과 현물을 민속사관고등학교와 박물관 등에 환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정몽진 KCC 회장, 정몽익 KCC클라스 회장, 정몽열 KCC 건설 회장 등 유족들은 “생전에 기본에 충실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업보국’이 기업의 본질임을 거듭 강조한 고 정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속사관고등학교 장학제도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까지 100억 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저소득층과 우수한 역량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 분야별 영재 발굴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첨단 과학 교육을 위한 설비와 기자재 마련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인프라 확충에 쓰인다.

또 융합기기 전문박물관 건립을 위해 서전문화재단법인에 고 정 명예회장의 유산과 유족들의 현물 지원을 합해 약 2000억 원을 기부한다.

박물관은 오디오를 통한 아날로그 감성 경험을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능력티켓 한장으로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능력티켓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적자원개발사업 모두 체험 사용 가능!

인적자원개발 0789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든 사업

G-Net  
일학습병행  
NCS  
WORLDJOB+  
TV WORK NET  
한국직업방송

# 인플레이 우려에도 완성차 '실적 페달' 은행·철강 '훨훨'

## '가격 전가력'이 실적 좌우

경기회복 기대에 오른 원자재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키운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원가 부담은 늘어나는데 이를 제품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한다면 더 그렇다. 같은 인플레이션이라도 미국과 한국에 미치는 충격은 다르다.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원자재값 상승은 한국 내수 경기와 무관한 외부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한다.

◇완성차 업계, 가격 인상 기대 = 원유, 천연가스, 산업용 원자재, 귀금속, 곡물, 돼지고기 등 19개 상품 선물 가격을 종합해 산출하는 CRB지수는 1일 기준 218.60으로 마쳤다. 1년 전(140.53)보다 55.7% 넘게 뛰었다. 원자재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CPI-PPI 스프레드는 양의 관계가 깨지고 있다. 기업의 생산 원가는 올랐지만, 제품 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전가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경우, 4월 PPI가 전년 대비 6.2% 상승해 집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업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고 있다.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지면 원재료 재고 투입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원가 부담 요인 해소 여부에 따라 산업별 격차가 더

원자재값 부담, 판매 가격에 반영 '포스트 코로나' 자동차 판매 늘 듯 TV·PC 수요는 점차 줄어들 전망

철강·원유·은행 등 경기민감주 업종 음식료업종 등 이익개선,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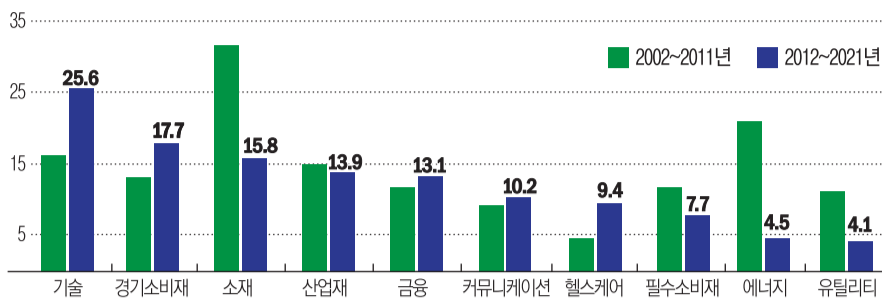
욱 커지게 된다. 판매가 변동이 소비자 수요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생산 기업들의 비용 부담(단기)이 커진다. 설비투자를 하거나 제품·부품·소재 조달에 있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싼 가격을 줘야 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업체들의 가격 전가력은 엇갈릴 전망이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는 완성차업계의 원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차 한 대에 100~300개의 차량용 반도체가 쓰인다. 하지만 완성차는 원가보다 판가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분류됐다. 경기 회복으로 완성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가 상승 속도보다 판매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평균가격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판가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D램,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액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전세계 섹터별 주가 수익률 (단위: %) ※ 출처: 블룸버그



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LCD 패널은 중국발 공급 과잉에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이 공장을 매각하거나 생산 규모를 줄였다. 생산량이 축소됐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TV, 태블릿 PC 수요가 급증했다. 그 결과 지난해 LCD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문제는 '집콕' 및 '재택근무'로 인한 TV 또는 PC 수요가 언제까지 증가할 것이냐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TV, PC 수요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과 달리 가격을 지속해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몰릴 것인가에는

고개를 가우뚱한다.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19가 지속하면서 세트 수요가 한동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원가 인상을 전가할 수 있었지만, 백신 접종에 따라 상반기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야외 활동이 재개되면 TV, PC 수요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으며, 출하량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금리 상승기, 은행·철강기업 '好好' = 전문가들은 은행·정유·철강 업종을 여전히 금리 상승기의 '투자 피난처'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 상

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중 철강·원유·은행 등 경기민감주 관련 ETF가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는 점도 이를 잘 말해준다. 시장금리 상승과 실물경기 호전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채현기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플레이션(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팽창하는 것)을 전제로 "이익 전망 개선세는 수출 대형주들이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재, 산업재 등 경기민감주 업종의 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음식료 업종도 관심이다. 식품업계는 연초부터 음료, 통조림, 가공 쌀밥 등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이정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품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강해 향후 곡물 가격이 안정화한다면 음식료 업체가 누리는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며 "연초부터 음식료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음식료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시점도 빨라져 긍정적인 환경 도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인아 기자 ijh@·조성진 기자 csjin2002@

## '원자재 랠리'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구리 가격 1년새 2배...납·니켈도 오름세 국산품 생산자가격 상승, 제조기업 '긴장'

구리 가격이 톤(t)당 1만 달러를 넘나들며 '폭질' 대접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알루미늄과 철광석 가격도 높은 몸값을 자랑한다. 주요국에서 내놓은 경기부양책에 친환경 공약 등이 맞물려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월가에서는 이번 원자재 강세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 랠리의 선두주자인 구리의 경우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3개월물 선물 가격은 톤당 1만159.50달러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1년 전보다 2배가량 올랐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구리는 친환경 인프라에 중요한 원자재로 가격이 떨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1년간 구리 목표가를 톤당 1만1000달러로 높였다. 2025년에는 1만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씨티그룹도 구리값이 연내 톤당 1만2000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철금속 가격도 올라 납(1당)은 전날보다 25.5달러 상승한 2208달러, 니켈은 447달러 오른 1만7811달러를 나타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67.94달러로 6개월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추가 경기회복에 따른 실제 수요 증가에 투자수요(가수요)까지 몰리면서 원자재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제조업 재고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공급망 병목현상 등을 고려할 때 원자재가격 상승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흐름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내놓은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재 수입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2018년 기준 국산품의 생산자가격은 0.4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기 직후(2010년 기준 0.62% 상승)보다는 0.19%포인트 줄었다. 수입원자재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파급 효과가 컸다. 2018년 기준 수입의존도 55.7%를 기록한 비철금속의 경우 원자재 수입가격이 10% 상승할 때 국산품 가격은 2.87% 상승했다. 같은 시기 수입의존도 34.9%의 철강은 1.77% 상승, 수입의존도 31.4%의 석유화학은 1.48% 상승했다.

삼성중공업이 단적인 예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 5068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후판 등 철강재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과 공사 손실 총당금, 고정비 부담 등으로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올해 상반기 철강재 가격 인상이 예상 폭을 훨씬 웃돌아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하며 적자 폭을 키웠다"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gy@

##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10년 동안 100만\* 고객이 선택한 녹차건강기능식품

# 메타그린 골드

한 번만 경험해보면 꾸준한 습관이 되는 메타그린 골드, 지난 10년 동안 100만\* 고객의 선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연구하여 설계된 녹차 카테킨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가볍고 원활한 대사 리듬을 완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습관에 메타그린 골드를 더하세요.

\*2012년 출시부터 2021년 2월까지 메타그린 누적 구매 고객수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면회가 가능해진 1일 80대 노부부가 안산시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손을 잡고 정담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산 mRNA 백신 잇단 출사표

에스티팜, 내년 상반기 목표  
“기존 기술보다 30% 비용절감”

아이진, 후보물질 항체 확인  
진원생명과학, 생산설비 구축

국내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현황

	<b>에스티팜</b> 1 특징: 자체 개발 스마트캡 기술 적용 2 현황: 2022년 상반기 조건부허가 목표
	<b>아이진</b> 1 양이온성 리포솜을 전달체로 개량 2 2022년 하반기 허가 목표
	<b>진원생명과학</b> 1美연구사와 공동 개발 2 mRNA 백신 컨소시엄 구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의 국산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mRNA 백신 개발 레이스가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한 셈이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mRNA 백신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중반 국내 기업이 개발한 mRNA 백신의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후발주자지만, 변이 바이러스까지 타깃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스티팜은 5'프라이임-캡핑(5'-capping) mRNA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이 가능한 자체 코로나 mRNA 백신 개발에 돌입했다. 올해 안에 임상 1상을 개시해 내년 상반기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목표다.

이 회사는 22개 후보물질을 발굴, 효능이 탁월한 3종을 선정했다. 최종 후보물질이 선정되는 대로 임상시험계획(IND)을 낼 예정이다. 후보물질은 항원을 보강하고, 면역세포인 T세포의 반응을 증가시킬 펩타이드 조각인 에피토프를 추가했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스파이크 단백질 단독 항원으로 개발한 기존 mRNA 백신보다 효능이 탁월하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높은 예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후보물질에 적용된 스마트캡(SMARTCAP) 기술은 미국 트라이링크의 클린캡(CleanCap) 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능을 확인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클린캡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접종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적용된 기술이다. 스마트캡은 자체 대량생산이 가능해 클린캡보다 가격이 30% 이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진 역시 mRNA 백신의 내년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다. 지질 나노입자 기술(LNP) 대신 면역증강제로 개발된 양이온성 리포솜을 mRNA 전달체로 개량한 백신을 개발 중이다.

비임상 결과에서 아이진은 모더나 백신과 유사한 수준의 중화항체 형성을 확인했다. 영국발, 남아공발을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확인도 진행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반복 검증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 공개할 예정이다.

아이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임상 1상을 신청하고 내년 말에는 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임상 진입 후 1년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DNA 백신의 임상 1/2a상을 진행 중인 진원생명과학은 올 4분기 mRNA 백신 원액 생산이 가능한 신공장을 완공한다. 신공장은 6800평 규모로, 내년 상반기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진원생명과학은 2018년 미국 매소디스트 병원 연구소로부터 mRNA 원액 생산 공정을 독점적으로 도입했다. 모더나, 큐어백 등 소수기업만이 보유한 공정으로, mRNA 백신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이를 기반으로 DNA 백신에 이어 mRNA 백신까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회사 관계자는 “매소디스트병원 연구소와 공동개발하고 있는 mRNA 백신 후보물질을 보유 중”이라며 “현재는 DNA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mRNA 백신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모더나 백신의 완제 위탁생산(CMO)을 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 송도공장에 mRNA 백신 원액 생산 설비를 증설하기로 했다. 백신 생산 전 공정에 대한 CMO 설비를 갖춰 병입에 그치는 반쪽짜리 CMO란 지적에서 탈피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스위스 론자가 독점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의 원액 생산을 맡으면 백신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혀 종합 바이오제약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내 백신 수급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혜은 기자 euna@

## “얼굴 보니 사람 사는 맛난다”

접종자 대상 경로당 문 열어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허용  
외식업계 “터널의 끝이 보인다”  
7월, 접종자 실외 마스크 해제

“이렇게 모인 게 얼마 만인지도 모르겠어. 사람들 만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1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경로당 근처 공원에 앉아 있는 최복현(78·가양동) 씨의 입가에 열은 미소가 번졌다. 최 씨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1단계 조치가 시작되자 곧장 집 밖으로 나왔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점심을 먹은 뒤 공원에 나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부터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하면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방문할 수 있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대면 면회도 허용된다.

7월부터는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식당·카페에서 1차 접종자는 실외 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회 접종자는 대면 종교활동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빠지며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나 소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다.

‘집단면역 마라톤’의 첫발을 땀 날,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웃음을 되찾았다. 활동 반경이 비교적 좁은 고령층엔 경로당이 만남의 장소이자 작은 사회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로당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한다. 지인을 만나더라도 소수에 그쳐야 했지만, 이날은 인원 제한 없이 경로당에서 모였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사는 김모(72) 씨는 “감염병 때문에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시청해 정말 적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밖에서 누굴 만나도 괜히 눈치 보았는데 백신을 맞은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모일 수 있다고 해서 아침부터 나왔다”며 “오랜만에 아는 얼굴들을 보고 이야기하니 사람 사는 느낌이 든다”고 미소 지었다.

1차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경로당도 눈에 띄었다. 각 아파트나 시설 여건에 따라 운영 재개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는 곳도 있다.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관계자

는 “경로당을 열어 달라는 주민이 많이 없는데 데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며 “접종 인센티브가 시행됐으니 곧 운영이 재개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고령자만큼 기대에 부푼 곳은 외식업계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음식서비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2020년 음식서비스 분야 산업인력 현황 보고서’를 통해 외식 업계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은 2736만 원으로 전년보다 16.5%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식 업계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반응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백신 인센티브 시행 첫날인 만큼 손님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백신접종 확대로 집합금지가 완화되면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근 1분기 뷔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터널의 끝이 와 있다고 본다. 백신접종 비율 더 늘어난다면 외식 업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관계자는 “주말이 인근 매장 중에는 점심부터 평소보다 방문객 수가 최대 20% 늘어난 곳이 있다”며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 현재 4인 이상 모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 “접종률 1% 아프리카 살려라” 美·中 긴급 백신 지원

향후 n차 진원지 차단 목적  
국가이미지 향상 일석이조

아프리카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1%대에 그치면서,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폭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과 미국, 유럽 등 각국이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아프리카 인구는 13억 명(2020년 기준·유엔 추산)으로 전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세계은행(WB)이 정의하는 저소득국이나 하위 중간소득국이 많으며,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할 충분한 재원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지역 내 경제 대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의 접종률도 1% 안팎에 그친다.

세계 평균(10%)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아시아나 남미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에 대한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자국만 통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곳이라도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 언제든 다른 나라로 확산,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지난달 20일 아프리카 약 40개 국가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 이외에도 남미, 동남아시아의 개도국들에 자국산 백신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코로나19 기원을 둘러싼 논쟁으로 추락한 국가 이미지를 높히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미국과 유럽도 백신 지원에 나섰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남아공을 방문, 아프리카 전역의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국 내 백신 접종이 궤도에 오른 미국과 영국은 잉여 백신을 개도국 지원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주도의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COVAX)’를 통해 총 8000만 회분의 백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닛케이에는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은 인구 증대에 따른 거대 경제권으로의 성장이 전망되는 아프리카와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 올리고 싶다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 7일부터 30세 미만 군장병 화이자 접종

AZ 제외 사회필수인력 대상  
안선 예약 첫날 100만명 마감

30세 미만 군장병 등 사회필수인력을 대상으로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안선 백신의 사전예약률은 예약 개시일 첫날 16시간 만에 100만 명 모두 마감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과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15일부터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필수인력 중 군장병에 대해선 군 자체 접종계획에 따라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에 대해선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안선 백신(100만 명분)

을 접종한다. 안선 백신은 AZ, 화이자 등 다른 백신과 달리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부스터 샷)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모더나 백신 5만5000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Z 백신 개별계약분은 87만9000회분이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출고됐으며, 2일에는 화이자 백신 개별계약분 65만 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으로 총 459명으로 집계돼 사흘 연속으로 500명을 밑돌았다. 이 중 국내발생은 449명이다.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가파르다는 점이다. 최근 1주간 주요 4종(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인도) 변이주는 202건 추가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누계로는 총 9952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시행돼 1592건(16.0%)이 변이주로 확정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봄바람 탄 5월 수출, 45.6% 늘어 32년 만에 '최대폭'

우리나라 수출이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도 7개월 연속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완성차 해외 판매도 눈에 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6% 증가한 507억3000만 달러, 수입은 37.9% 증가한 478억1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9억 3000만 달러 흑자(13개월 연속)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 증가율은 1988년 8월(52.6%) 이후 최대폭이다. 일평균 수출액도 24억2000만 달러로 5월 중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5대 주력품목 중 선박을 뺀 14개 품목이 증가했고 이 중 12개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 수출은 10년 만에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9대 지역 모두 늘었다.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가 11개월 연속 증가했고, 수출액은 24.5% 증가한 100억4300만 달러로,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노트북, 서버 등의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지속 상승 요인이 주요했다.

15대 주력상품 중 14품목 증가 완성차 해외판매 65.5% 늘어 반도체·석화 등 체력 견고해져

석유화학은 가전·포장재·의료 등의 수요 회복으로 인한 단가 상승으로 94.9% 늘어난 45억65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반기계는 25.9% 증가한 42만8200만 달러 △자동차는 93.7% 늘어난 34억9300만 달러 △석유제품은 164.1% 증가한 30억29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대(對) 지역별 수출은 중국이 22.7% 증가한 131억9000만 달러다. 중국 내 공장 가동률 정상화 속에서 철강,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이 선전했다.

미국도 소비 심리 회복 등 속에서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62.8% 증가한 74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U는 봉쇄령 완화 조치 본격화에 따른 유로존 내 소비심리 개선,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세 지속 등으로 62.8% 늘어난

월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49억 달러, 아세안은 반도체와 철강 및 디스플레이 선전으로 64.3% 증가한 87억 1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우리 완성차 5사의 5월 해외 판매도 눈에 띈다. 전년 동월 대비 65.5% 증가한 것.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극심한 생산 차질과 판매실적 부진의 기저효과와 영향에 세계 소비 심리 회복 등으로 인해 증가율이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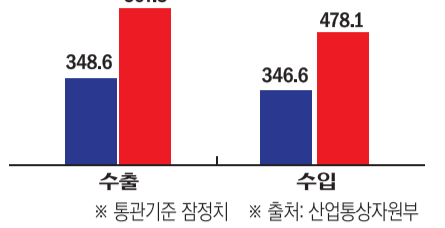
현대차는 해외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67.7% 증가한 26만1073대를 판매했다. 기아차는 74.2%, 르노삼성차는 320%, 쌍용차는 442% 급등하는 등 한국GM(-37%)을 제외하고 모두 해외 판매량이 늘었다.

이들 업체는 모두 국내에선 판매 감소의 쓴맛을 봤지만, 해외 판매가 크게 늘어 전체 판매에선 증가의 단맛을 봤다.

차종별로 보면 본격적인 유럽 수출이 시작된 XM3가 르노삼성차의 해외 판매를

수출입 실적 (단위: 억 달러,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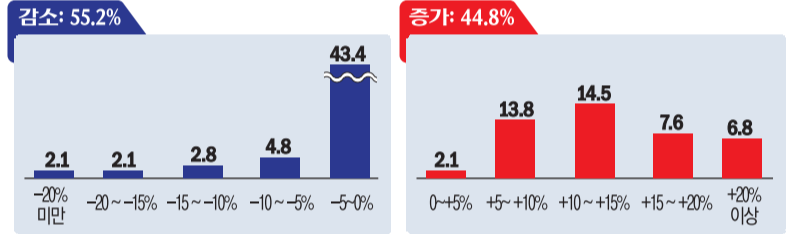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견인했다. XM3는 지난해 4247대가 수출되며 양산 이후 가장 많은 선적을 기록했다. 쌍용차는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어 판매량이 4배로 성장했고, 이는 2016년 12월(6005대) 이후 5년 만의 월 최대 실적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일 평균 수출액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넘은 것은 기저 효과와 무관하게 5월 수출이 선전했음을 알 수 있다"며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지만, 내용면으로도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이 더욱 견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이투데이, 유창욱 기자 woogi@이투데이

2021년 하반기 수출 증감률 전망 (단위: %)



## “일부 업종이 전체 수출 견인 하반기 ‘K자형 양극화’ 우려”

### 한경연 ‘상고하저’ 전망

하반기 수출 기업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150개사 응답)으로 ‘2021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하반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1일 밝혔다. 단, 기업 수 기준으로는 55.2%가 하반기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감소 70.0%, 증가 30.0%) △자동차·자동차부품(63.0%, 37.0%) △바이오 헬스(59.5%, 40.5%) △석유화학·석유제품(52.4%, 47.6%) 등은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이 증가를 전망한 기업보다 많았다.

△철강(46.2%, 53.8%) △일반기계·선박(31.8%, 68.2%) 등은 수출 증가를 전망한 기업이 감소를 전망한 기업보다 더 많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하반기 수출 증가 기업보다 감소 기업이 더 많은 상황에서 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부 업종과 기업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수출에서도 업종과 기업별로 실적이 갈리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반기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한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세계 교역 위축(4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밖에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 악화(16.2%),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악화(7.4%) 등도 지목했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은 △코로나19 완화 및 세계 경제 반등에 따른 교역 활성화(51.3%)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 개선(19.8%)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강화(9.6%)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업의 53.3%는 올해 하반기 수출 채산성이 전년 동기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채산성이란 수출로 기업이 버는 이익의 수준을 의미한다.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28.7%, 악화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8.0%였다. 올해 하반기 우리 기업들이 수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22원, 손익분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16원이었다.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묻는 말에는 △백신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 총력(31.8%)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확대(18.5%)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18.3%) △한일관계, 미·중 무역 분쟁 등 외교 현안 해결(14.4%) △신시장 발굴, 수출처 다변화 등 지원(11.2%)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 한 눈에 보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자산관리는 역시 주파수 웰스!

금융상품 전용 (채권/펀드/달러RP 등)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SK증권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매금자보호법에 따라 매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71-02542호  
 (2021.5.24~2022.5.16)

# 탄소중립 이행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만든다

환경부에 '기후탄소정책실' 신설 국제협력팀·물관리정책실도 두기로 녹색회복 필요한 개도국 지원 약속 GGGI에 500만 달러 기금 조성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추진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한정에 환경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결과 합동 브리핑을 마친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에서 큰 위치에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미래 지향적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도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2023년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환경부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회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환경 행동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으로 개도국이 코로나19 이후 녹색재건을 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

한 연 500만 달러가량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연 400만 달러를 P4G 기여금으로 공여한다.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개최되는 기후환경 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의향도 표명했다.

한 장관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는 없으니,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이번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동의했다"며 "환경부는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미래 세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면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

립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다. 하부조직으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을 편제한다.

탄소국경세 논의 등 국제 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도 기후탄소정책실 아래 새로 설치한다.

기후탄소정책실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업무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물 관련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차질 없는 홍수기 대응 등을 위해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한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 3국(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은 물관리정책실 아래 정책관으로 편제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한전 에너지공대 착공 김부겸(왼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1일 전남 나주시 부영CC 일원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식에서 내빈들과 발파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 12월부터 탈원전 비용 전기요금으로 보전 전기료 인상 불가피해 논란

올해 12월부터 국민이 낸 전기요금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 또는 백지화된 원자력발전소사업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시행된다.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초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월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작년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 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

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한수원은 일단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등의 국민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기금 재원이 충분해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주는 데 무리가 없다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하다.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순차적으로 원전의 빈자리를 메운다면 전기요금도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내달부터 택배기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12개 직종 특고 노동자·사업주 '보험료율 1.4%' 절반씩 부담 산재보험 확대·실업급여 혜택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미가입) 신청도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 주 등 12개 직종(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들 특고 가운데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사업소득+가타소득-비과소득-경비)이 80만 원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내년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 법령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고 보험료의 상한액을 일반 근로자의 평균 10배 이내로 설정했다. 소득이 많은 특고는 기존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이다. 일정 기준의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특고에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달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국세청, 자영업자 소득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카드매출·과세 정보 결합 추진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금이나 손실 보상을 빠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 매출 정보와 소득·부가세 과세 정보를 결합해 자영업자의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

는 방식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는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의 신청을 받아 카드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한 이종결합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카드사업자 단체인 여신금융협회로부터 가맹처리 한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를 받아

이들의 소득 관련 세금(소득세·부가가치세) 정보를 연계해 카드 매출과 소득 신고액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틀 만들었다. 이 같은 데이터 결합을 의뢰한 실질적인 기관은 자영업자의 실시간 소득 파악을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로 알려졌다. 이번 정보 결합은 국세청이 '데이터 3법'에 따른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한 사례로 기록됐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소득하위 20%〉 저소득층 10가구 중 6가구 '적자살림'

1년 전과 같아... 2~5분위는 감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에서 10가구 중 6가구는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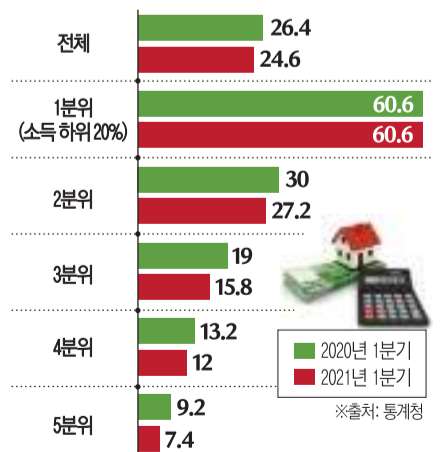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기 전국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24.6%로 지난해 1분기 26.4%보다 1.8%포인트(P) 줄었다.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한다.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소비해 적자를 낸 가구라는 뜻이다.

소득 상위 80%에 속하는 2~5분위에서는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모두 줄었다. 적자 가구 비율은 2분위가 30.0%에서 27.2%로 2.8%P, 3분위가 19.0%에서 15.8%로 3.2%P 줄었다. 4분위는 13.2%에서 12.0%, 5분위는 9.2%에서 7.4%로 각각 1.2%P, 1.8%P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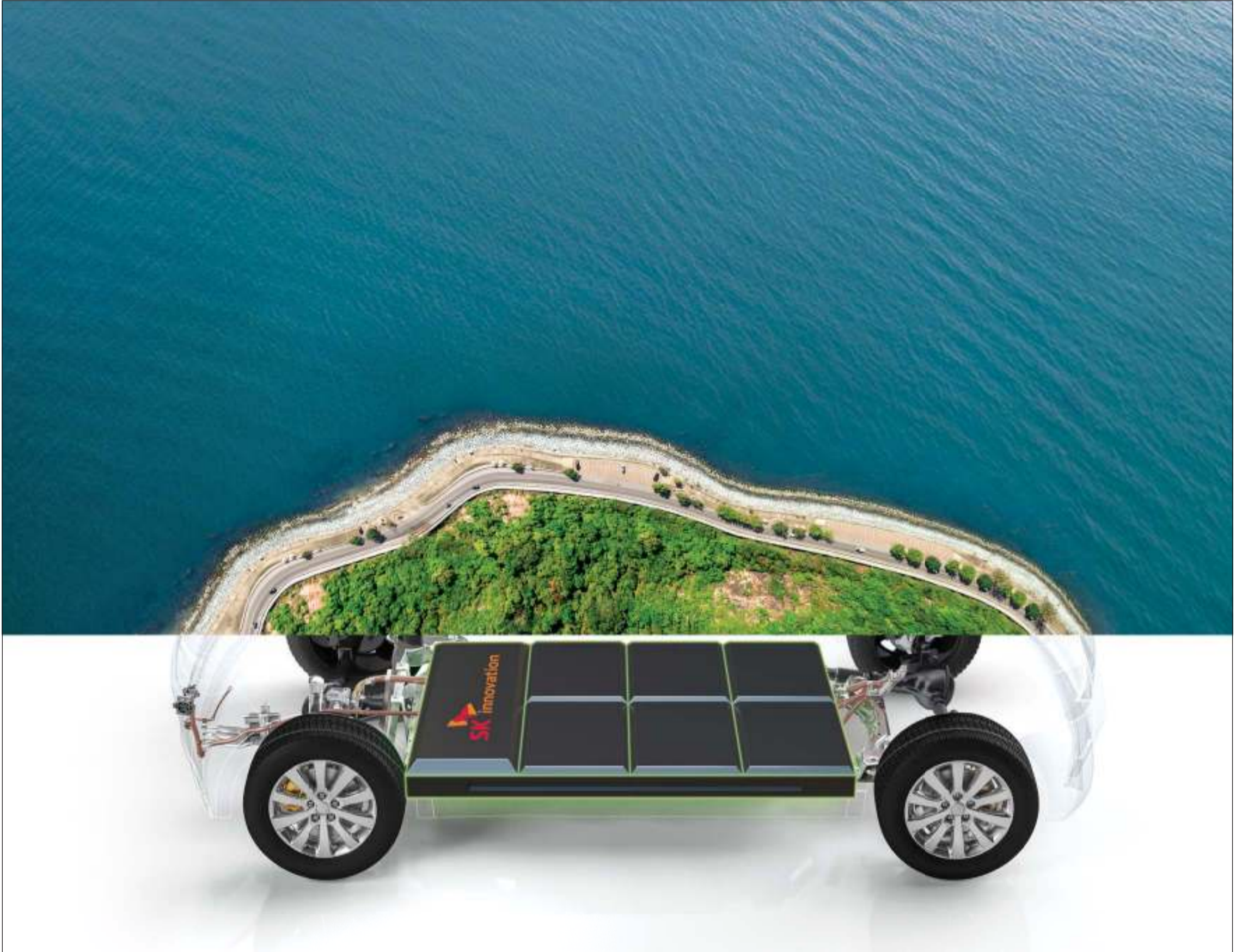
1분위에서는 60.6%로 1년 전과 같았다.

적자가구비율 현황 (단위: %)  
※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



1분위 10가구 중 6가구는 여전히 적자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의미다. 1분위 적자 가구 비율(60.6%)은 5분위(7.4%)의 8배를 웃돌았다. 1분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이 2~5분위보다 가장 큰 비율로 늘었으나 소비지출 역시 많이 증가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 K-그린이 혁신이다

SK이노베이션의 한걸음 한걸음이  
K-그린의 위대한 길이 되도록

최고로 안전하고 가장 멀리 가는  
친환경 배터리로 세계를 달립니다  
환경을 위협하는 '탄소발자국'이  
지구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세계를 놀라게 할 **K-그린**,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그 시작을 함께 합니다

*Hi* K-Green *Hi*!Innovation

# 맞올린 '김오수號' 文 “공정한 검찰 바로 서야”

## 文 ‘탄소중립’ 선언하자 정의당, 탄소세법 발의 與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부터’

### 金 “국민 중심 검찰로 탈바꿈할 것 수사 관행·조직문화 과감히 혁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축하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배우자와 참석한 신임 김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김 총장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증정했다. 꽃다발은 정의를 의미하는 락스퍼, 국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달라는 의미의 말채나무와 알스트로메리아, 신뢰를 뜻하는 아스타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은 기념촬영 후 인왕실로 이동해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은 검

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며 “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

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

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임명식 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은 범법자의 전쟁, 부정 부패 적결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이전 법무법인이 수인한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일환 기자 whan@정수천 기자 int1000@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탄소세 도입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전날 P4G 정상회의를 마친 후라 주목된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여당은 움직임이 없다. 탄소배출권제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 개정해 유연탄·무연탄·중유·LNG 등 화석연료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1톤당 내년엔 50달러로 시작해 2030년 100달러까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탄소세 세입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지원과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보호에 쓰일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입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탄소세 법안은 앞서 3월 1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내놓은 바 있다. 온실가스 톤당 8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으로 전 국민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이른바 ‘기본소득 탄소세’다. 올해 톤당 4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 원까지 올리는 안이다.

두 법안이 마련됐지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모두 소수정당이라 통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주목되지만,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탄소배출권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양의원 민주당 의원은 “탄소세 부과는 배출권을 100% 유상할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현재 2025년까지 10%를 유상할당하는 데 그치는데 이를 더 확대시키는 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과 용 의원 또한 배출권제와 중복됨을 고려했다. 장 의원은 “탄소배출권제를 통해 배출권을 유상할당받거나 거래한 경우 탄소세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고 했고, 용 의원은 유상할당받은 배출권으로 탄소세를 대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긴 하지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

〈송영길 대표〉

## ‘조국 수렁’ 빠진 與 노심초사…宋의 ‘입’은

### 회고록 발간으로 재점화된 ‘조국 사태’ 막판 고심 오늘 입장 표명할 듯…대권주자 ‘대선 악영향’ 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발간함에 따라 재점화된 ‘조국 사태’의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1일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도부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2일 ‘민심 경청 결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조국 사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논란이 일자 이를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다.

송 대표는 지난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으로도 꼽혀온 조국 사태에 대해 ‘불공정’, ‘상실감’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준석 열풍’으로 전

당대회 흥행을 일으킨 반면, 민주당은 ‘조국의 시간’을 두고 당내 혼란을 빚었다.

조국백서 작성에 참여했던 김남욱 의원은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조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과를 한 만큼 당사자의 사과로 같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은 존중하면서도 공정성 논란에 대한 당의 입장은 별도로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처럼 강성 친문 인사들은 당이 관여할 바 아니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인천시 부평역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비주류와 일부 대선주자들은 재소환된 ‘조국 사태’로 인해 내년 대선 여론까지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의 분위기도 났다.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사실상 조 전 장관에 힘을 신는다면 중도층 이탈이 우려된다. 조 전 장관을 비판한다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친문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

어 고심이 깊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뒤늦은 사과로 리스크를 입었던 당 지도부로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번 입장 정리 선택이 복잡하다.

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표명한다 해도,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당 내홍이 불식될지 장담할 수 없다. 자칫 백신, 부동산 등 민생을 우선하려는 쇄신 의지보다 이목이 쏠리는 것에 곤혹스럽다는 속내다.

쇄신을 앞세운 송영길 당 대표로서도 야권 인사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으로 ‘혁신’ 이미지를 빼앗길 상황에 직면했다. 이 가운데 불거진 ‘조국 사태’에 대해 송영길 당 대표가 어떠한 톤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따라 쇄신 주도권을 잡지도 주목된다.

여권 대권 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대해 일일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6월호 발매



## COVER STORY 아름다운 인생 졸업식

- PART 1 장례 문화로 본 웰빙
- PART 2 '생전 정리'로 후회의 대물림을 막다
- PART 3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중간점검
- PART 4 찾아줘 내 상조
- PART 5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도 될까?
- PART 6 "슬퍼도, 슬프지 않아도 괜찮다"



## 신라보가 만난 사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관통하는 브라보 '디지털' 라이프 1990년대를 사로잡은 최고의 MC 임백헌

생활 속 법률 상식  
안전한 상속 솔루션, 신탁  
구해줘 부동산  
은퇴 후 리츠 해볼까?

느린 여행  
강화도 고려산 아래  
묵묵한 내공의  
우공책방



가보고 싶은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 ②  
전북 고창군

감성 예술! 미술관 여기  
산기(山氣)와 햇살과 바람,  
그리고 볼 만한 그림들

습기로운 보람생활  
7월 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4세대 실손보험'



# ‘코로나 핫스팟’ 된 동남아 ‘글로벌 공급망’ 비상

말레이시아 ‘전국 봉쇄령’ 시행  
 日도요타·혼다 현지 공장 셧다운  
 공급기지 泰·베트남도 감염 비상

인도에 이어 동남아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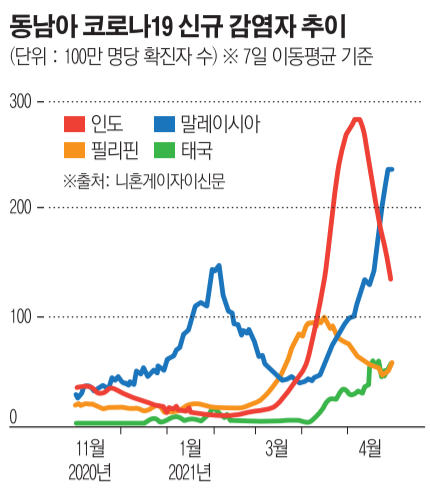
1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그동안 비교적 잠잠했던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현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다.

인도를 웃도는 속도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이날부터 전국 봉쇄를 시행, 현지에 진출한 일본 도요타와 혼다 등이 공장 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대로 각국에서 감염 확대가 지속할 경우에는 가뜰이나 극심한 혼란을 받는 글로벌 공급망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2주 동안 일일 신규 감염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달 29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9020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인구 100만 명당 신규 감염자 수는 200명을 넘어서면서 감염자 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도를 웃돌았다.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날 14일까지 대부분 업종에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제철업종은 평소 대비 10% 인원만 출근을 인정하기로 했다. 전기, 화학, 의약품 등은 60%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조업에 영향을 받게 됐다. 도요타는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현지에서의 생산·판매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공장 재개 시기는 규제 등을 근거로 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현지 생산 실적은 약 5만 대였다. 혼다는 봉쇄 기간 현지 2개 공장 생산을 멈추기로 했다. 닛케이에 “말레이시아 공장은 이륜차 30만 대, 사륜차 10만 대의 연간 생산능력을 갖춘 혼다의 동남아 주요 거점”이라고 설명했다. 다이하쓰공업도 현지



공장 2곳을 멈춰 세운다.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도 지난달 하루 감염자 수가 최다를 기록하는 등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수도인 방콕 유흥가에서 지난 3월 말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클러스터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북부 공업 지대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인도형과 영국형이 합쳐진 새로운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새 혼합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알려진 변이들보다 감염력이 훨씬 강하고, 복제도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동남아 지역은 최근 수년 동안 중국에서의 생산 기지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여서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부쩍 늘고 있다. 미즈호리서치&테크놀로지스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9개국의 수출(부가가치 기준)은 2019년까지 10년간 2.1배로 늘었다. 성장률은 세계 주요 5개 지역에서 최고이며, 점유율은 10.5%가 됐다. 태국은 동남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도요타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이곳에 공장을 세워 역내와 중동, 오세아니아 등지에 완성차를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 삼성전자 스마트폰 주력 공장이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의 공급 거점이 되고 있다. 닛케이에 “감염 확대 방지 조치 등으로 조업에 지장이 생기면, 영향은 동남아 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경종을 울렸다. 변효선 기자 hsbun@



호주 여자 소프트볼 대표팀 선수들이 1일 일본 나라타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외국 선수들 중 처음으로 일본에 입국한 호주 대표팀은 군마현 오토시에 머물면서 훈련할 예정이다. 나라타/EPA연합뉴스

## 美 “이민확대” G2 ‘인구전쟁’ 中 “출산장려”

기존정책 뒤집으며 ‘저출산 해법’ 사활, 실효성·부작용 우려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인구 정책 해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 감소가 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양국 모두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하는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인구 정책 해법을 이민제도 개편에서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국토안보부 보고서를 입수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 이민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민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에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난민, 망명 신청자, 박해를 받은 성 소수자 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의 미국 이주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미국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 여파가 겹쳐 인

구 증가 둔화를 겪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기준 인구 센서스(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3억3150만 명으로 10년 새 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이 1790년 인구 센서스를 시작한 이래로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인구 대국 중국도 최근 저출산 문제로 경제 노동인구 급감 우려가 고조되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은 이날 모든 부부에게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35년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버리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출산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중국도 인구 증가 둔화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공개한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본토 인구가 14억1178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5.38% 증가했다. 이는

1953년 해당 통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저조한 증가세다. 사실상의 산아제한 정책 철폐에 유아용품 제조사와 분유 제조업체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은 크게 반겼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크다. CNN은 소득과 생활비, 주택 등 여러 부문에서 팍팍한 개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중국의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인구 증가 둔화를 막는 묘수로 이민 확대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의 헨리 쿠엘라 연방 하원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민 확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쿠엘라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민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국경 마을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코로나 할퀸 印, 경제전망 암울

중산층 경제활동 타격, 올해 GDP 성장률 하향 조정

생지옥을 연출했던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세가 최근 다소 진정되고 있다. 문제는 암울해진 경제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인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3월 마감한 인도의 2020·21 회계연도 4분기 GDP 성장률은 1.6%를 기록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지난 회계연도 전체 성장률은 마이너스(-) 7.3%였다.

지난 분기 성장률은 세계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였던 4월과 5월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4월 한때 40만 건을 돌파하던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인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지출 회복이 느릴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인도 독립 싱크탱크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의 마헤시 비야스 최고경영자(CEO)는 “인도 경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GDP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1차 확산 당시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던 중

산층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끝난 후 보복 소비가 일어난 선진국과 달리 인도는 젊은 층을 포함해 많은 인구가 병에 걸리고 사망하면서 수요 회복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는 전체 13억 인구 중에 3%만이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쿠날 쿤두 이코노미스트는 “소위 말하는 보복 소비는 서구 세계에 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한다”며 “인도의 경우 2차 확산 여파로 수요 회복이 훨씬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티브-입소스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인도 도시 거주자의 4월 소비 자신도지수는 3월보다 1.1% 하락했다.

많은 경제학자는 애초 인도의 올해 GDP 성장률을 약 11%로 예측했지만, 일각에서는 8%대까지 내리고 있다.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쿤두 이코노미스트는 역시 자신이 내놓은 전망치를 9.5%에서 8.5%로 낮추며 “격정되는 것은 3차 확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다상은커녕... 美 ‘IPO 열기’ 급제동

3~4월 상승폭 20%로 ‘반토막’ 데뷔 첫날 급락도 다반사

올해 초 미국증시를 달군 기업공개(IPO)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상장 대박을 꿈꾸던 개미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 1~2월만 해도 뉴욕 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의 첫날 주가가 IPO 공모가 대비 평균 40% 이상 폭등했다. 그러나 3~4월 상승폭은 약 20%로 반 토막 났고 5월에는 18%로 더 떨어졌다.

최근에는 증시 데뷔 첫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중국보험기술그룹인 위드롭은 19%, 영국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술을 보유한 백시테크는 17% 각각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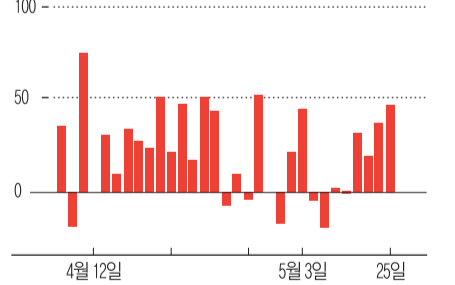
2분기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와 가상화폐 급락 등으로 증시 전반이 요동치면서 IPO 시장도 급속히 냉각된 것으로 풀이된

다. 상장 대박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도 큰 폭으로 줄었다. 1분기 101개 기업이 IPO를 통해 420억 달러(약 46조5000억 원)를 조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분기 들어서지는 지금까지 54개 기업이 180억 달러를 조달하는 데 불과했다.

로펌 로프스앤드그레이의 자본시장 분석 파트너인 레이철 필립스는 “IPO는 모두가 상장 대박을 누리는 시장이 더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공모가 책정도 그만큼 까다로워졌다. 금융정보업체 레피티브 분석 결과, 1분기 IPO에 나선 기업 중 4분의 1이 예상 범위보다 높게 공모가를 책정했다. 2분기에는 그 비율이 11%로 떨어졌다. 예상 범위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 곳도 13%에 달했다. 이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최고치다.

미국증시 상장 첫날 추가 평균 등락률 추이 (단위: %)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도이체뱅크의 제프 변셀 자본시장 부문 대표는 “올 초 시장 상황은 엄청나게 낙관적이었다. 모든 미국 기술기업 IPO에서 예상 범위 이상으로 공모가가 책정됐다”며 “IPO 시장이 망가졌거나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이제 물러설 여지가 많아졌다”고 비판 시장 환경을 설명했다.

IPO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연기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5월 중순 자회사인 모기지 보험 부문을 IPO 하려던 젠웬스파이낸셜의 톰 맥너리 최고경영자(CEO)는 “가격 경쟁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관련 분야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다”며 “딱판에 IPO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쌍용차 勞 ‘회생법원 패싱’...정부 지원사격 노렸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만남 배경에 구조조정 없는 회생 확신 분석  
금융위선 “만남 큰 의미 없어”  
법정관리 일정, 시작부터 지연

###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일정

날짜	계획	변수
6월 말	매각 입찰 공고	
7월 1일	회생계획안 제출	조사보고서 제출
7월 말	인수의향서 접수	6월 10 → 30일로 연기
8월 말	예비 실사	일정 출몰이 미뤄질
9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망
10월 말	가격 협상 등 매각 계획	



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회생·정산을 결정할 조사보고서도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나서 금융위원장을 만난 배경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회생의 확신을 전제로 대규모 구조조정 없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동시에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산업은행에 우회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쌍용차 노조와 만난 뒤 관련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조 측의 제안으로 만남이 성사됐고, 장관으로서 의견 청취의 일환일 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밝혔다.

현재 쌍용차는 법정관리 중으로 매각 절

차를 밟고 있다. 그런 와중에 쌍용차의 조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회생 시기도 뒤로 미뤄졌다. 회생법원 관리 아래로 들어서면서 쌍용차는 금융위나 산은의 손에서도 벗어난 상황이다. 두 기관도 “법원의

결정이 중요하다”라며 쌍용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런데 노조는 금융위와 먼저 접촉했다. 만남이 이뤄지기 전, 업계에선 쌍용차의 인력 구조조정이 대폭 이뤄질 것이라

얘기가 흘러나왔다. 산은과 금융위 어디에서도 사전에 노조와 만난 적이 없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얘기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음에도 노조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 인력 구조조정은 앞으로 회생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구조조정의 규모가 어떻게 쌍용차는 인건비 등의 비용 감축을 통해 몸집을 작게 해야만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신규 투자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동걸 산은 회장의 입을 통해서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쌍용차의 공익채권은 약 7000억 원 규모로 회계 장부뿐만 아니라 회생보다 ‘정산’에 더 무게가 실린다. 비용 감축 계획 없이는 법원으로서도 존립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쌍용차 노조는 인력 감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인력을 줄이지 못하면 전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조는 정부 지원을 통해 대규모 구조조정 없이 쌍용차가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준비가 늦어지는 와중에도 노조가 은 위원장과 접촉한 배경이다.

노조로서도 정부에 기대는 것이 유리하

다. 산은은 ‘구조조정 원칙’을 강조하며 자금을 쉽게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과 노조가 만난 자리는 쌍용차 공장이 있는 평택의 지역구 의원도 함께했다. 이 역시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을 비롯해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오갔을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위도 노조가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쌍용차 지원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얽여 있는 문제”라며 “(금융 지원을) 약속할 수 없고 서로 양보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가 금융위에 직접 지원을 요청한 배경에는 내부적으로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는 요인도 고려되고 있다. 분사 인력은 물론 쌍용차와 연계된 부품업체의 일자리가 걸려 있어 청산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은 위원장이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쌍용차를 살리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법인보험대리점>

## 대기업 GA는 되고 일반 GA는 안된다?

### 금융 인사이트

생보협회, 우수인증설계사 자격 규정 바뀐 한화금융서비스 부여  
업계 ‘형평성 문제’ 불거질 수도

생명보험협회가 우수인증설계사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도 포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자회사형GA도 엄연한 GA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대로라면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우선 올해까지만 포함하고 내년부턴 TF를 통해 선정 기준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인콰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대형사 입맛에 맞게 안건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올해 설계사 3만2757명을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했다. 우수인증설계사는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문제는 이미 자회사형GA가 된 한화

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설계사들도 협회의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협회는 지난달 말 서면 이사회를 통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생보사 판매자회사 소속 설계사를 인증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규정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회원사 소속 설계사와 전속 개인보험대리점 소속의 설계사들만 생보협회 우수인증설계사를 획득할 수 있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단 올해까지는 전년도 모집실적을 기준으로 자회사형GA 소속 설계사를 우수인증설계사에 포함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TF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손보협회는 향후 판매 채널 변화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인증기준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는 결국 대형사 입맛에 맞춰 안건을 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이전에도 라이나금융서비스, ABA금융서비스 등 전속설

계사가 자회사형GA로 이동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들에게 우수인증설계사를 부여했던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도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형사의 요구를 무시할 순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한화생명으로서도 회사의 전략적 판단으로 설계사들을 이동시킨 것이라, 설계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은 설계사들에게 주는 일종의 훈장이다. 근무 기간, 소득 수준, 불완전판매 여부 등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신뢰받는 설계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영업 활용에도 크게 작용한다.

자회사형GA의 생보협회 우수인증설계사가 인정되자, 별도로 진행 중인 생보협회의 자회사형GA의 준회원 가입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예상도 나온다. 다만 자회사형GA의 준회원 가입은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협회의 정관 개정 사안이라 부담이 적지 않고, 한화생명 입장에서 우수인증설계사가 해결된 이상 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준회원 가입을 욕심낼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지연 기자 sjy@



신한카드의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 페이스페이’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작동하도록 안면인식 본인인증을 업데이트하고 본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신한카드 직원이 서울 중구 본사 출입구에 설치된 페이스페이 인증 단말기에서 안면 인식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카드

## 마스크 쓴 채 ‘안면인식’ 결제

신한카드 ‘페이스페이’ 기능 개선  
사옥 카페에서 시범 결제 서비스  
사원증 없이 본인인증 사옥 출입

신한카드가 국내 최초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Pay(페이스페이)’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면 인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노출되는 얼굴 상단부의 특징점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업그레이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신한 페이스페이를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를 고도화 했다.

이 서비스는 신한 페이스페이 무인 등록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마스크를 착용해도 신한 페이스페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분사 사옥 내 카페테리아에서 시범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는 신한 페이스페이 안면 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 기술을 신한카드 임직원의 사원증 기능으로 확대했다. 무인 등록기에서 사번 등 임직원 정보를 한번만 등록하면 카드 형식으로 제작된

사원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신한 페이스페이로 사옥 및 사무실을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다.

특히 안면 인식 과정에서 체온 측정까지 할 수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국내 최초로 한양대학교에서 상용화한 이후 CU한양대생활관 등에서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과 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매장을 선보인 바 있다.

올해에는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신한 페이스페이를 론칭하며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를 대형 유통점으로 확대했다.

신한 페이스페이 고도화는 신한금융그룹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선순환 가속화’로 고객·기업·직원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향점으로 선정한 ‘디지털(Digilog)’ 전략의 일환이다. 유대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 본부장은 “국내 바이오 결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신한 페이스페이의 업그레이드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출입과 결제를 위한 본인 인증을 적용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신보 창립 45주년...“중소기업 성장에 모든 힘 쏟겠다”

윤대희 이사장, 경제 도약 발판 다짐

윤대희(사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확실한 성장복원에 모든 힘을 쏟아 국가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1일 대구 본점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신용보증기금 4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보는 이날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신보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보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사이버 교육, e-청렴서약 실시 등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진행해 ‘부정부패·성비위·감질’ 없는 3무(無) 실천을 다짐했다.

신보는 대기업 위주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던 70년대 초,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976년 6월 1일 출범했다. 설립 이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1000조 원에 달하는 보증을 공급해 국가경제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국가경제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서 경제안전판 역할도 해냈다. 특히 올해는 보증 규모를 사상 최대인 80조 원으로 설정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려는 것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의 가치를 반영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동시에 포용적·친환경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찾기  
KBGoodJob

KB굿잡과 함께 지금, 성공취업 ON

# 2021 제1차 KB굿잡 온택트 취업박람회

2021.5.31<sup>월</sup> - 6.11<sup>금</sup>

<https://kbgoodjob.kbstar.com>

검색창에 **KB굿잡** 🔍 검색해보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212-1호(2021.05.18), 광고물 유효기한 2021.06.11까지

**KB** 국민은행

# 온라인 상담부터 맞춤형제품 추천... 고객사도 '엄지척'

## 디지털 영업' 힘 신는 기업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이 '비대면 온라인 영업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업사원을 통해 고객사와 접촉해 왔던 영업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LG화학은 1일 고부가합성수지(ABS) 고객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고객 관계 관리(CRM) 시스템인 'LG Chem On'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달 26일 처음 문을 열었다.

LG화학은 이 시스템을 통해 대면 영업에 의존했던 기존 업계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LG화학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전 세계 석유화학 기업 중 하나의 플랫폼으로 고객 접점 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LG화학이 처음이다.

LG Chem On을 사용하면 모든 업무를 실시간·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LG화학은 건본 발송 등 업무 진행 현황을 알려주는 알림과 채팅을 활용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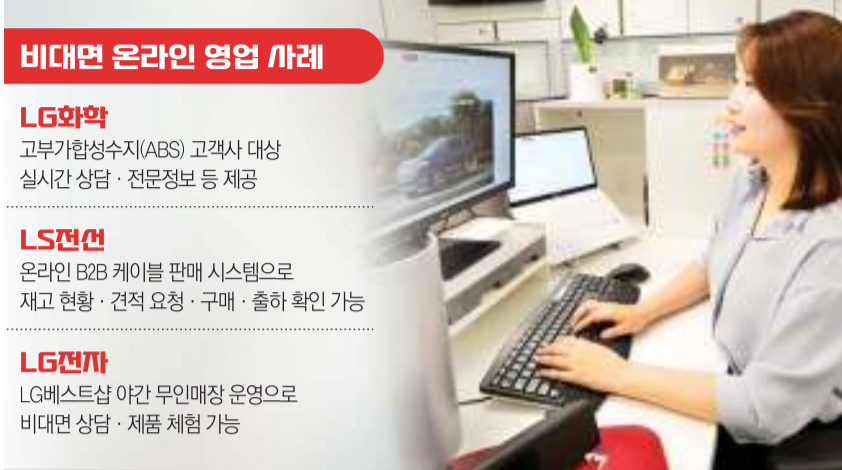
LG화학 'Chem On' 서비스  
글로벌 업계 첫 비대면 고객 관리

LS전선, 판매 시스템 '원픽'  
대도시 유통점 대상 시범 운영  
야간 무인매장 도입한 LG전자  
고객 부담 덜고 구매 의향 높여

간 상담 시스템도 마련했다. LG Chem On은 맞춤형 제품 추천으로 고객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LG화학 ABS를 사용해 자동차 부품을 만들려는 경우 LG Chem On에 접속한 다음 업종별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 된다. 부품별 추천 제품과 지역마다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OEM 소재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사원에게 직접 물어보야 했던 전문 정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LG화학이 미국, 중국, 유럽 지역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규 고객을 발굴



**비대면 온라인 영업 사례**  
**LG화학**  
고부가합성수지(ABS) 고객사 대상 실시간 상담·전문정보 등 제공  
**LS전선**  
온라인 B2B 케이블 판매 시스템으로 재고 현황·견적 요청·구매·출하 확인 가능  
**LG전자**  
LG베스트샵 야간 무인매장 운영으로 비대면 상담·제품 체험 가능

LG화학 영업사원이 디지털 영업을 위해 'LG Chem On'에 접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LG화학

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LG Chem On은 석유화학사업본부 전체 사업부를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LS전선도 최근 온라인 B2B 케이블 판매 시스템 '원픽'을 도입했다. 원픽은 케이블 유통점이 온라인으로 케이블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견적 요청·구매·출하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유통점에서 영업사원들과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일일이

연락해야 했다.

LS전선은 이 시스템을 아파트, 빌딩, 플랜트 등에 사용하는 배전 케이블 사업에 우선 도입했다. 먼저 수도권과 대도시 주요 유통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올 하반기 도입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LS전선은 지난해 시공 현장에서 작업자가 환경에 맞는 케이블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케이블 사업에 디지털을 접목해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LG베스트샵을 대상으로 야간 무인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오후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평일과 주말에 동일하게 운영된다.

LG전자는 비대면 상담과 무인매장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과감한 시도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은 매장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매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후 매장 안에서 자유롭게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고객들은 비대면 온라인 영업 방식에 대해 호응적인 반응을 보였다. LG화학 ABS 고객사인 A사는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업무 처리 시간이 줄었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LG전자 고객들도 부담 없이 편하게 매장을 이용해 구매 의향이 높아졌다고 호평했다. LS전선 관계자도 "유통점들이 반나절씩 걸리기도 하던 재고 확인을 1분 만에 할 수 있고, 출하 상황도 바로 알 수 있다"라며 "원픽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점유율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LG전자가 1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탈플라스틱 실천 협약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박형제 LG전자 HE사업본부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LG-환경부-자원순환사회연대 '미래 세대 위해 탈플라스틱 실천'

LG전자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경영 강화의 목적으로 환경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탈(脫)플라스틱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LG전자는 이달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탈플라스틱 실천 협약식'을 열었다. 가전 업체가 환경부, 시민단체 등과 뜻을 모아 탈플라스틱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가 올해를 탄소 중립 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LG전자는 국내 대표 제조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탈플라스틱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LG전자는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을 늘려 플라스틱 사용 원천 감축에 앞장서고,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 비중 또한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LG 올레드 TV는 백라이트가 없는 구조라 사용하는 부품 수가 적어 자원 효율이 뛰어나다. 65형 제품 기준, LG전자가 올해 선보인 차세대 올레드 TV인 LG 올레드 에보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플라스틱은 같은 인치 LCD TV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LG전자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적은 올레드 TV 제품군을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18개까지 대폭 확대했다. 올해 절감할 수 있는 플라스틱 양은 총 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

# 현대차·기아, 5년 만에 수출 200만대 '청신호'

이달부터 반도체 부족 해소 전망  
'주력 시장' 美, 소비 지출 회복세  
유럽 고급차 판매 본격화 시너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올해 국내 생산 수출이 5년 만에 2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SUV와 고급차 등 수출 품목의 다변화 덕에 수익성 역시 단순한 수출 대수가 지닌 의미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1일 현대차와 기아 등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올해 수출목표를 200만대 이상으로 상향 수정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국내 생산설비 부분 가동 중단 등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하반기 수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셈이다. 지난해 4분기에 정한 올해 수출목표는 200만대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6월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하반기 가동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작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수출시장이 빠르게 회복 중"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사태와 비교해도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생산 완성차 수출은 2014년 243만 대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했다. 수출 내림세의 시작점은 2017년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중국 수출분이 매우 감소한 것은 물론, 현지 생산분까지 줄어들 만큼 현지 시장이 위축됐다. 이후 2019년까지 연간 190만 대 수출을 간신히 유지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소크로 인해 양사의 완성차 수출은 160만 대까지 무너져 159

만826대에 그쳤다.

수출 주력 시장인 미국의 경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현지 서비스 부문 소비지출이 증가세다. 미국 GDP와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회복이 근로소득을 끌어올렸고, 전체 소비도 늘었다. 자동차가 더 팔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뜻이다. 유럽에서도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판매가 본격화됐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도 유럽 수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중국에서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자차 이용 수요 증가로 올 들어 강한 회복세를 기록 중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삼성, AI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출시

실내기 최대 64대까지 연결 가능  
냉난방·에너지 효율 대폭 강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해 냉난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강화한 대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신제품 'DVM S2(Digital Variable Multi S2·사진)'를 1일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DVM S'를 처음 출시한 이후 용량과 성능을 지속 업그레이드해왔다. 이번 'DVM S2'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접목해 9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선보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시스템에어컨 360, 벽걸이형



에어컨, 1Way·4Way 천장형 카세트 등 삼성 무풍에어컨 실내기를 최대 64대까지 연결할 수 있다. 학교·사무실·상가·아파트 등 공공시설이나 대형 상업 공간 등에 적합하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해 최적으로 제어하는 'AI 맞춤형 제어' 솔루션을 탑재한 것

이 특징이다.

△실내외 환경에 따른 운전 패턴의 변화를 학습해 기존 대비 약 20% 더 빠르게 냉방하는 'AI 쾌속냉방 제어' △온도·압력 등 다양한 기능의 센서들을 통해 실외기 주변 환경을 파악해 전력 소비를 약 15% 절감하는 'AI 에너지 세이빙 제어' △냉매 누설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려주는 'AI 실시간 냉매 누설 감지(檢知)'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기능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의 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을 최대 9%까지 끌어올렸다. 열교환기의 면적을 최대 25%가량 확대해 운전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소형 모델의 토출부에는 수리부영이의 날개 형상에 착안한 톱날형 팬(Fan)을 적용했다. 또 유로(流路)를 개선해 풍량은 증가시키면서 소비 전력은 절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국내 조선사 '희망 뱃고동'

한국조선해양, 1.4兆 수주 '잭팟'  
삼성중, 컨테이너선 4척 계약

한국 조선사들이 잇따라 수주 낭보를 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이틀간 총 1조3600억 원 규모의 선박 12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8일과 31일 오세아니아, 유럽 및 아프리카 소재 5개 선사와 각각 대형 LNG운반선 4척, 8만 6000㎥급 초대형 LPG운반선 2척, 4만㎥급 중형 LPG운반선 1척, 5만 톤급 PC선 4척, 3만㎥급 소형 LNG운반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수주한 대형 LNG선 4척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4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다른 선종에서도 수주 소식이 이어졌다. 초대형 LPG선 2척에는 LPG 이중연료 추진엔진이 탑재되며,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4년 상반기까지 선주사에 인도된다.

또한, LNG 이중연료 추진엔진이 탑재되는 소형 LNG선 1척과 PC선 4척, 중형 LPG선 1척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 2023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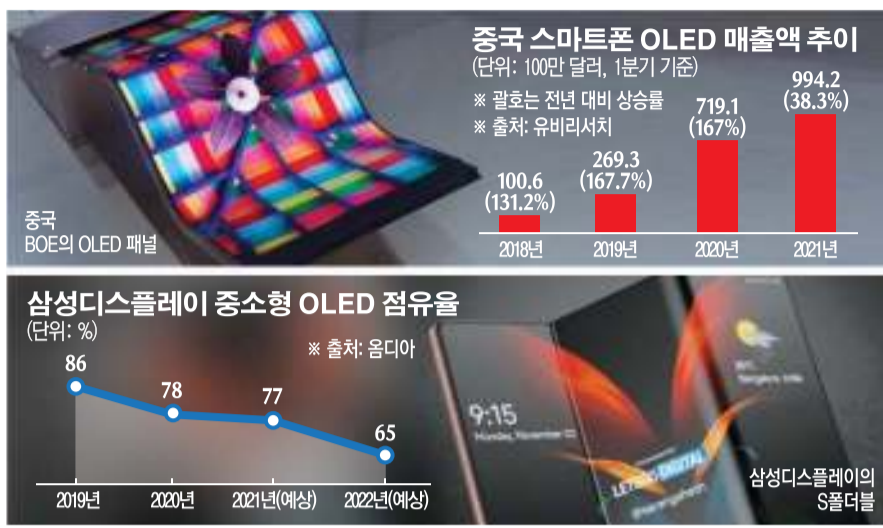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총 5290억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20피트(ft) 컨테이너 1만3000개를 실을 수 있으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및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각종 연료 절감장치 △스마트십 솔루션 에스베슬(SVESSEL)을 탑재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선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총 48척, 59억 달러를 수주하며 올해 목표 91억 달러의 65%를 달성 중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 ‘중소형 OLED’ 진격의 中 vs 반격의 韓

中, 자국산 패널 사용 제품 출시  
3년 만에 총 매출액 10배 성장

삼성디스플레이, 노트북 등 시장 확대  
신기술 공개·올해 3兆 증설 전망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탑재되는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에서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에 가속이 붙고 있다. 아직 기술 격차가 소폭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대규모 투자와 기술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도 브랜드를 강화하고, 증설 투자에 나서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1일 시장조사기관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OLED 시장 전체 매출액은 9억9400만 달러(약 1조 1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억1900만 달러)과 비교하면 38.3% 증가한 수치다. 불과 3년 전인 2018년 1분기(1억 달러)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성장했고, 2019년 1분기(2억6900만 달러)와 비교해서도 3배 가까이 시장이 커졌다.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이유는 자국산 패널을 쓰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대거 OLED가 탑재된 신제품을 내놨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중국 업체가 출시

한 OLED 탑재 스마트폰 종류는 57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7종보다 2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OVX(오포·비보·샤오미)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작년 1분기 3개의 OLED 탑재 스마트폰을 내놨던 비보는 올해 10개, 작년 5개 출시했던 샤오미는 14개의 OLED 포함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놨다.

중소형 OLED 생산기술 중 최고 난도로 분류되는 폴더블 OLED에서도 중국 BOE, 로올 등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OLED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인 BOE의 경우 위협적인 속도로 고객사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 미미한 물량이지만 애플 아이폰용 리퍼브 물량 공급에 성공했고, 올

해엔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제품 중 일부 모델에 최초로 OLED 제품을 달 것으로 알려졌다. 10월엔 중징 6세대 OLED 공장 설비 건설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대규순천현대디스플레이신소재학과 교수는 “BOE가 (중소형 OLED 양산을 위한)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다”라며 “그간 생산 수율이나 품질을 확보하지 못해 (본격적인 공급이) 지연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의 약진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건 삼성디스플레이다.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한때 90% 가까운 점유율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 점유율이 점차 하락 중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디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해당 시장 점유율은 2019년 86%에서 올해 77%, 내년 6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도 올해 들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올해 초 13년 만에 자사 OLED 제품에 사용할 ‘Samsung OLED’란 새로운 브랜드 로고를 발표하고, ‘레드오션’이 된 스마트폰 시장 외에 노트북·태블릿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한 것이 그 예다. 최근 열린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회에서 두 번 접히는 디스플레이인 ‘S폴더’ 등 차별화된 신기술을 공개하며 기술 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더불어 올해 3조 원에 달하는 증설 투자도 예상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

## ‘쏟아 쏟아’

SK하이닉스-신세계  
SSD 판매 이색 마케팅

SK하이닉스가 신세계와 손잡고 반도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판매 확대를 위해 이색 마케팅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신세계와 함께 ‘쏟아 쏟아’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쏟아 쏟아’는 SK하이닉스의 SSD(‘쏟’으로 표현)가 일렉트로마트(SSG)에 입점했음을 재미있으면서도 단순하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다.

SK하이닉스는 ‘쏟’으로 널리 알려진 신세계의 약자 ‘SSG’와 ‘SSD’의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과 국내 첫 오프라인 판매처가 신세계그룹의 일렉트로마트인 점에서 착안해 ‘쏟아 쏟아’ 마케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기업 PR>

## 금호석화 R&D ‘초격차’ 미래 동력 확보 ‘젠걸음’

연구랩 신설 NB라텍스 경량화  
CNT 등 친환경 제품군 확대  
기술 경쟁력으로 불확실성 극복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산업계 경쟁이 심화되고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니트릴 장갑의 소재로 사용되는 NB라텍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NB라텍스의 내구성과 인장강도를 향상하면서 경량화를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라텍스 부문 기술력 향상을 위해 대전 중앙연구소 라텍스 연구랩이 분리·신설됐다.

자동차 타이어 소재로 주로 사용되는 고흥 합성고무에 관한 연구·개발도 한창이다. 최근에는 UHP(초고성능) 타이어용으로 내마모성과 제동 특성이 우수한 ‘High-Styrene SSBR’ 개발에 성공했다.

합성수지부문에서는 다른 소재보다 단열 성능이 강화된 초단열 에너지폼(세너포르)을 개발해 상업화에 나섰다. 금호석유화학은 세너포르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단열재 두께를 절감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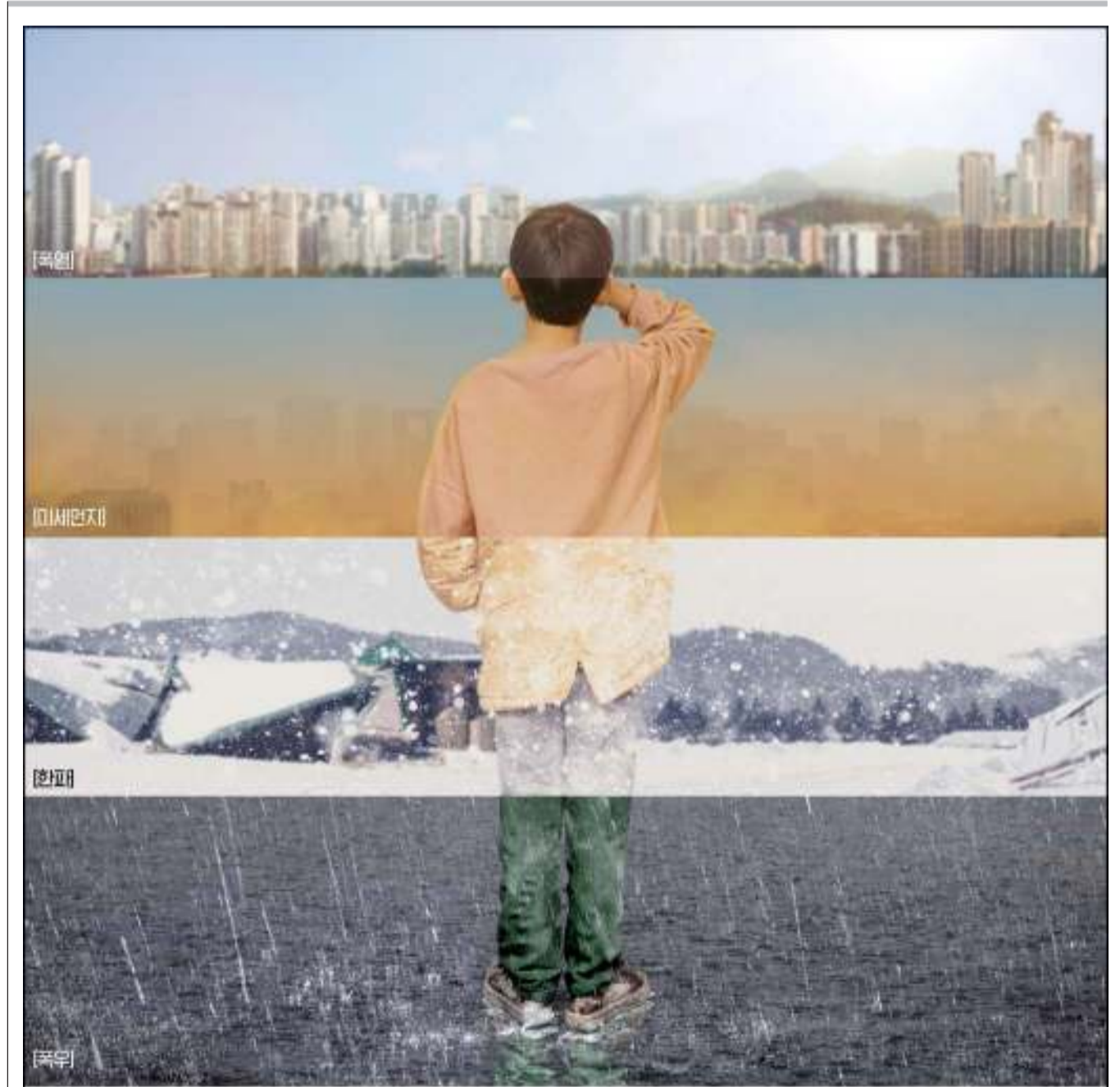
저탄소·친환경 시대에 맞는 제품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탄소나노튜브(CNT) 연구부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CNT 소재 개발과 상업화에 성공했

다. CNT는 이차전지 핵심 도전재로 전기와 전자의 흐름을 돕는 소재로 사용된다. 앞으로도 금호석유화학은 이차전지용 CNT 소재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품질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호피엔비화학은 고부가가치 제품 연구·개발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수소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에폭시(Epoxy)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폴리우레탄 주원료인 MDI를 생산하는 금호미쓰이화학은 고객 요구에 맞는 맞춤형 폴리우레탄 솔루션 제품을 개발했다.

또 최근 전자재 분야에서 주목받는 준불연 폴리우레탄 시스템과 미래 자동차 내장재 활용을 위한 MDI 연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MDI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폴리우레탄 분야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호폴리켐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합성고무 EPDM의 경량화, 소음·진동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친환경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자동차 웨더 스트립 등에 사용되는 TPV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기후변화 대응이 힘든 에너지빈곤가정 127만가구



1588-1940  
www.childfund.or.kr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기후변화교육과 아동 참여형 저소득가정 주거 및 에너지 보충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기관입니다.



# 발사대에 선 누리호 ‘독자 우주개발 시대’ 연다

### 발사 1달 앞두고 인증시험 착수 연면적 6000㎡ 제2 발사대 신축 항우연, 국내 기업 7곳과 개발 성공뎀 세계 7번째 발사체 보유



한국형 발사체(KSLV-II) ‘누리호’가 10월 발사를 위한 발사대 인증시험에 착수했다. 발사대 검증을 마치면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독자 개발한 발사대를 통해 우주로 쏘아 올려지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발사체부터 발사대까지 모든 설비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다. 10월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자립국이 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 신규로 구축한 제2 발사대의 인증시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7개 기업과 함께 엄벌리갈 타워, 추진제 공급, 발사체 기립 장치 등 누리호 발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발사대 인증시험은 누리호의 각 단을 모두 조립해 3단형 인증모델(QM)을 완성한 후 발사대로 이송·기립하고 전체 발사 운용 절차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누리호 인증모델은 이날 오전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했다. 인공위성이 실제 탑재될 때를 대비해 온도나 습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공조장치도 가동됐으며, 발사대까지 거리 1.8km를 시속 1.5km로 움직였다.

가능점검은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 8월에 다시 한번 실제 발사체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10월 실제 발사일 하루 전날 본 발사체가 최종 기립하게 된다.

실제 발사에 활용될 누리호 비행모델 1호기(FM1)는 1단과 2단의 총 조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단은 이미 조립이 완료돼 보관 중이다. 앞으로 1단 및 2단의 조립이 완료되면 각 단을 연결해 비행모델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날 기립한 인증모델은 10월 발사체 실물과 같은 크기다.

10월 발사에는 1.5톤가량의 위성 모사체가 탑재된다. 이후 내년 5월에는 200kg 가량의 실제 위성과 1.3톤가량의 위성 모사체를 실어 우주로 날려 보내게 된다.

권현준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현재 수행 중인 발사대 인증시험을 완료하면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올해 10월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인증모델은 발사대에 기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증시험을 진행한다. 추진공급계 기능점검, 추진제 충전, 배출, 발사체 고정 장치 분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후 발사체 하강과 발사대에서 조립동까지 이송하는 등의 총 7가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국회 찾은 中企 “52시간제·양극화 해결해 달라”

###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과 최저임금 심의 등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여당과 만난 중소기업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소상공인 업계도 야당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1일 개최했다. 지난달 초 송 대표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신(新) 경제 3불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써 달라”며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할 맛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잘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약속한 만큼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정부 지원도 연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도입, 온라인 플랫폼 등 굵직

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와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만능적 인력난 등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달란 요구도 나왔다. 현행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가능한 것을 50인 미만 기업, 기한 항구화 등으로 확대해달란 것이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거 사용 중인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건의도 나왔다. 시계업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증가했지만, 불공정거래 피해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기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거래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

다며 수수료와 광고료 부과 기준에 있어 대·중소기업 간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중소기업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에 불리한 공공조달시장 제도(최저가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현실화 등) 개선 등 총 10건의 현장 건의와 22건의 서면 건의를 이어갔다.

한편 중기·소상공인업계도 야당을 찾아 현장 애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장과 전통시장, 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 등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자금지원 확대 및 디지털화 지원 △전시장 산업 피해 보상 법제화 △공유숙박 제도화에 대한 재검토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및 양성 지원 등의 업종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단 취지의 건의가 이어졌다.

서 부회장은 “전체 기업의 93.3%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 SK매직 ‘코어 360° 공기청정기’ 웰스더원 ‘홈카페’

## 국내 생활가전 디자인 전성시대

### 코웨이·SK매직·웰스 등 해외 디자인 어워드 잇따라 수상

국내 생활가전 업체들이 세계 디자인 어워드에서 잇따라 디자인상을 받았다. 성능 이외에도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고려한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코웨이와 SK매직, 웰스 등 각사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2021 iF 디자인 어워드’ 및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디자인상을 받았다. 현대렌탈케어도 올해 처음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으면서 국내 다수 렌탈 업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각각 독일 국제디자인포럼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평가받는다. 제품 성능 이외에도 △인테리어 △심미성 △디자인 품질 △혁신성 △환경 요소 등 디자인 차별성과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국내 다수의 생활가전 업체가 수상한 배경에는 렌탈 시장 규모의 급격한 성장이었다. KT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지난해 렌탈 시장 규모는 약 10조 원을 넘어섰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렌탈업체는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차별화된 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코웨이는 iF 14년 연속, 레드닷 15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수상작 ‘노블 공기청정기’는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은 조형적 디자인으로 공간미를 더했다. 직선 구조의 정사각 타워형

디자인을 적용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기청정기의 형태를 탈피해 조형미를 더한 슬림 타워형 디자인과 에어 팝업 기능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라며 “앞으로도 탁월한 성능과 심미적 가치를 겸비한 디자인을 지속해서 개발해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드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K매직도 ‘코어 360° 공기청정기’와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등이 디자인상을 받았다. 360° 공기청정기는 반려동물로부터 발생하는 털과 냄새, 극초미세먼지까지 사각지대 없이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다. 성능과 공간 효율을 극대화해 1인 가구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 등 활용도가 높아 지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웰스는 ‘웰스 더원 홈 카페’를 통해 iF,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 영예를 안았다. 정수기와 연동해 외형을 축소하고, 차와 커피를 하나의 기기로 이용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렌탈케어는 올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처음으로 본상을 받았다. ‘더케어 블레이드 공기청정기’는 블레이드(날개) 형태의 디자인에 타공 방식을 더해 심미성과 공기 청정 성능도 극대화한 것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디자인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를 고려한 편의성, 공간 활용도 등 디자인적 요소와 높은 위생성,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를 집약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소상공인 92%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 48% “시급 8720원 매우 부담”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9명 가량이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미 인력 감축·폐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는 게 적당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 소상공인 중 46.3%가 ‘동결’을, 45.7%가 ‘인하’를 요구했다. 반면 ‘인상’은 8.1%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희망인하 수준은 ‘5~10% 인하’가 41.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현재 최저시급인 8720원에 대한 체감도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 많음’이 47.8%로 가장 많았고, 부담 많음(26.3%), 보통(19.2%), 부담 없음(4.8%), 전혀 부담 없음(1.9%)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체 경영상황에 현재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영향을 끼침’이 48.2%로 가장 많았다. 신규 고용 포기까지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75.6%가 ‘현재도 신규 고용 어려움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 1~5%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12.3%)’, ‘최저임금 5~10%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6.1%)’,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 없이 신규 고용 예정(2.7%)’, ‘최저임금 10~15%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1.7%)’, ‘최저임금 15~20%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1.5%)’ 등의 답변이 나왔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시급한 개선 과제를 묻는 물음에는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5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모두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ESG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BIG STEP FOR TOMORROW**



QR코드를 찍어  
래퍼 라인  
ESG 뮤직비디오를  
감상해보세요

# '햇반' 쫓는 '양반' 펄펄 끓는 8000억 즉석밥 시장

돌솥밥 버전 '햇반솔반' 론칭  
동원F&B '양반' 앞세워 추격  
하림 순밥·헤이루 쌀밥 가세

CJ제일제당	즉석밥 제품군 <small>*양반은 HMR 제품군 전체 ※출처: 각사</small>	동원F&B
햇반, 컵반, 햇반솔반	제품군	센국, 양반 즉석밥(내달 출시 예정)
5500억 원(햇반)	2020년 매출	3000억 원(양반*)
올 하반기 100억 원(햇반솔반)	2021년 매출 목표	4000억 원(양반)

'햇반'을 앞세워 즉석밥 시장에서 사실 상 독점한 CJ제일제당에 동원F&B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CJ제일제당이 쌀밥 버전의 햇반까지 출시하면서 동원은 즉석밥의 프리미엄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양반'을 필두로 메가HMR브랜드 육성에 나서며 흰쌀밥 출시를 예고했다. 즉석밥 시장이 커지면서 후발주자의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8000억 원 규모의 즉석밥 시장이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이후 집밥족이 늘면서 시장규모 1조 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즉석 영양 쌀밥 브랜드 '햇반솔반'을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 '돌솥밥 버전'의 햇반으로,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출시된 제품은 '뿌리채소영양밥', '버섯영양밥', '통곡물밥', '꿀약밥' 등 총 4종으로 버섯, 무, 계피 등을 달아내 풍미를 더한 밥물에 버섯, 연근, 고구마, 밥, 호박씨와 같은 큼직한 원물을 넣어 만들었다.

◇햇반의 대변신, 양반의 도전=현재 국내 즉석밥 시장의 선두주자는 1996년 출시된 CJ제일제당의 '햇반'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즉석밥 카테고리 시장점유율 부동의 1위로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5년여간 쌓아온 브랜드 헤리티지를 발판 삼아 CJ제일제당은 그동안 잡곡밥, 컵반 등을 내세워 제품 차별화를 시도했다. 최근엔 '햇반 험미쌀밥'을 출시하며 잡곡밥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출시표를 던졌다.

이번 햇반솔반도 CJ제일제당이 주력한 즉석밥 프리미엄화의 산물이다. 햇반솔반은 맨밥을 사 먹는 시대를 열어젖힌 햇반,

밥 품질을 높은 간편 대응식 햇반컵반에 이은 3세대 즉석밥에 해당한다. 앞으로 '신 무균밥 공정'을 적용한 새로운 쌀 가공품을 지속 출시하고 장시간 상온에서 안전하게 맛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수출 확대도 주력한다는 목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햇반솔반은 '밥을 사서 먹는'라는 개념조차 없던 25년 전 선제적 투자와 기술 개발로 국민 식생활을 바꾼 햇반에 이은 또 한 번의 혁신"이라며 "맨밥, 잡곡밥, 컵반 등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진화를 계속해 온 햇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식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양반'을 필두로 메가HMR 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선포한 동원F&B가 소용량 버전의 흰쌀밥 출시를 예고하며 추격전에 나선다. 동원F&B 측에 따르면 내달 중 양반 브랜드를 앞세운 흰쌀밥 버전의 즉석밥을 출시한다. 앞서 2007년 출시된 센국은 발아현미 100%로만 만들어진 잡곡밥 컨셉으로, 동원F&B에서 흰쌀 즉석밥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동원F&B는 36년 전통의 한식 브랜드 '양반'을 리브랜딩해 한식 전문HMR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양반 브랜드의 지난해 매출액만 3000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목표 매출액 4000억 원을 바라보고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양반 브랜드 전용으로 흰쌀밥을 출시해서 김, 국밥찌개, 전

통음료 등이 있는 양반 HMR 제품군을 보강 및 확장할 계획이다"라면서 "기존에 있던 센국을 양반 브랜드로 통합할지 여부는 시장 반응을 보며 천천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 순밥 등 후발주자 속속 가세=후발주자들의 도전도 잇따르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거나 판관비를 확 줄여 저가 경쟁력을 확보해 틈새를 뚫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하림이 출시한 즉석밥 '하림 순밥'이 대표적이다. 100% 쌀과 물만으로 지어져 그 어떤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 업체들이 일정 부분 쌀겨 첨가물을 넣었다는 점과 차별화된다. 기존 즉석밥의 평균가(1800~1900원)보다 비싼 2000원대인 것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가격을 확 낮춘 곳도 있다. 특히 최근 곡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로 과거 업체들이 줄줄이 즉석밥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 같은 저가 경쟁력이 돋보이는 상황이다.

편의점 CU는 PB(자체상표) 상품 'HEYROO 우리쌀밥'을 990원에 선보였다. 중간 유통 비용 및 광고비 등의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 것이 비결이다. 기존 상품 대비 반값 수준인 데다, 증정 행사가 적용되더라도 30% 이상 싸 가격 경쟁력이 높다. 11번가가 지난해 출시한 '갓반'도 210g당 900원대로 기존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하다. 김해지 기자 heyji@



1일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새로 선보인 '바이오퍼블릭(Biopublic)'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 전기식 힘주는 대형마트

대형마트가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말 소분 건식 매장을 선보인 데 이어 자체 브랜드 '바이오퍼블릭'으로 관련 사업에 출시표를 던졌고 롯데마트는 최근 '비바건강마켓' 상표를 출원해 사업 강화를 예고했다. 홈플러스도 최근 '시그니처 홍삼' 시리즈를 속속 내놓고 본격 진출에 앞서 시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마트, 전기식 본격 진출=이마트는 전기식 PL 브랜드 '바이오퍼블릭' 라인을 오는 3월부터 노브랜드 전문점, SSG닷컴과 함께 본격 판매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바이오퍼블릭'은 전기식 대중화를 위해 유사상품과 최대 30% 가량 저렴한 가성비 장점이 있다. 제조는 국내 전기식 ODM(제조사 개발 생산 방식) 1위 기업 인콜마비엔에이치가 맡았다.

첫 선을 보이는 품목은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C 스틱, rTG오메가3, 홍삼 스틱, 루테인, 칼마디(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밀크씨슬, 멀티비타민 남성 용과 여성용 9개다. 상품 가격을 일일 권장 섭취량으로 나누면 멀티비타민과 비타민C 스틱, 루테인, 밀크씨슬, 칼마디는 163원, 프로바이오틱스와 rTG오메가3는 196원에 불과하다.

남현우이마트 건강기능식품 팀장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선보여 고객이 손쉽게 건강기능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이마트가 고객 건강 증진 서포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홈플러스도 운영=롯데마트도 전기식을 강화했다. 지난 2015년 론칭한 친환경 자체브랜드(PB) '해빗(Hav'eat)'을 2018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로 키우고 있다. 시작은 신선식품과 자연조미료 등이었지만, 최근 비타민과 노화방지 제품 등으로 상품군을 재편해 현재 40여 개의 전기식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에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해빗 백색 혈관 관리 홍국&진코'를 내놨

고, 이어 '해빗 다이어트 인아웃 콜레우스 포스콜리'와 '해빗 마시는 콜라겐 엠블(20ml×14병)' 등의 이너뷰티 제품군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홍삼 제품도 선보여 '해빗 홍삼정 스틱(10ml×30포)'과 '해빗 홍삼정(240g)' 등을 출시하고, 올해도 '해빗 집향환'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강성현 대표가 이마트 본점에 문을 연 맞춤형 소분 건식 매장은 'IAM(아이엠)'을 방문해 강희석 대표와 만남을 가진 직후 롯데쇼핑은 전기식 브랜드로 추정되는 '비바 건강마켓' 상표를 출원하며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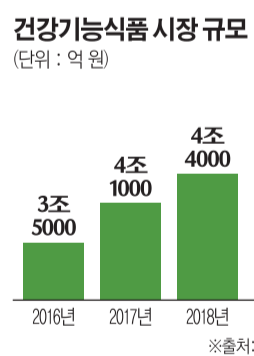
홈플러스는 PB 시그니처의 상품군으로 전기식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시그니처 6년근 홍삼정'을 출시했고, 이어 지난달에는 '시그니처 매일 먹는 진 짜홍삼'을 내놨다.

◇전기식 규모 4년 새 50%↑=대형마트가 전기식을 강화하는 이유는 폭발인 시장 성장세가 원인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20년 11월에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3조5000억 원이던 국내 전기식 시장은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4조9000억 원으로 몸집을 불렀다.

규제완화도 전기식 확대에 힘을 보탤다. 올해부터는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됐고 전기식을 소분해 추천·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 등으로 진입 장벽도 낮은 편이다.

선물용 상품이 아닌 개인 구매 목적 상품 매출이 늘고 있다는 점도 대중 친화적인 대형마트의 구미에 맞다. 이마트의 2016년과 지난해 매출을 각각 비교해보면 선물용 매출은 1조2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17.3% 늘어난 반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매출은 2조3000억 원에서 3조5000억 원으로 51.9% 늘며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이마트 '바이오퍼블릭' 론칭 롯데 '해빗'·홈플러스 '시그니처' 시장 규모 급성장에 PB 강화



## 몽골에 문 연 GS25 “라떼·치킨 맛집으로 대박”

### 3개 지점 10일간 3만명 방문

편의점 GS25가 현지 식문화를 반영한 차별화 상품으로 몽골에 연착륙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5월 18일 3개점을 오픈한 이후 3개점을 추가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몽골 내 GS25는 현재 총 6점을 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에 10호점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그랜드 오픈한 3개 점포에는 10일 동안 3만명의 울란바토르 시민이 방문했다. 이는 울란바토르 성인 28명 중 1명이 방문할 수 있다. 인기에 힘입어 GS25는 최초 예상했던 매출에 비해 약 2.7배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주요 매출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프레시푸드(도시락, 김밥, 주먹밥 등의 간



몽골 현지 고객들이 GS25 매장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제공 GS리테일

편식)와 카페25, 치킨25의 매출이 전체 중 절반에 육박하는 49.4%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GS25는 몽골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차별화 상품을 출시한 현지화 전략이 제대로 적중했다는 분석이다.

유목민이 선호하는 생우유와 GS25가 자랑하는 원두커피 'CAFE25'를 접목시킨 생우유라떼는 하루 평균 200잔

이 넘는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몽골의 주식이 주로 육류로 구성된 점에 착안해 선보인 치킨25는 한 끼 식사로 젊은 층의 호응을 받아 10일간 2000마리 이상 팔리며, 전체 카테고리 중 베스트 5 안에 올랐다.

차별화 상품 외에도 점포 오픈과 동시에 론칭한 몽골 GS25의 공식 모바일 앱 'GS25MN'은 10일간 7만 2000회의 다운로드를 달성했으며, GS25 배경의 인기 드라마 '편의점 샷별이'는 몽골 NTV에서 방영된 후 드라마 시청률 3위에 올랐다.

현지 파트너인 손롤라이 그룹은 GS25의 행보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룹 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GS25가 현지에서 빠른 사업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주현 기자 jooh@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서원에 씨는 “여성으로서 가장 축복인 월경을 매일 걱정하고 비위생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모레 카운셀러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여성건강 이음 캠페인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라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김해지 기자 heyji@

## 아모레퍼시픽, 여성 청소년 위한 '이음 캠페인'

아모레퍼시픽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방문판매원인 아모레 카운셀러와 함께 '여성건강 이음 캠페인'을 전개한다. '여성건강 이음 캠페인'은 생리용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에게 안전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여성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착한 소비 및 기부 캠페인이다. 지난월부터 이달까지 판매된 바이탈뷰티의 여성건강 라인 제품 수익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 후원해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여성 및



# “한 우물론 안 돼” IPO 앞둔 기업들 사업 다각화 총력

크래프톤, 이영도 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 IP 게임 재개발 착수 프롬바이오, 생활용품 브랜드 론칭... 교촌, 신메뉴 연달아 출시

흔히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시그널로 읽힌다. 단일 상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공모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어서다. 최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매출 다각화’에 한창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크래프톤에 대해 내달 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내달 수요예측과 청약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을 앞둔 크래프톤은 연내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후속작으로 2051년을 배경으로 하는 신작이다. 구글플레이 사전 예약에서 43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한 게임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탈피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크래프톤이 공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매출의 80%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성과에 전체 수익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크래프톤은 이영도 작가의 대표 판타지 장편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 지적재산권(IP)의 게임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2019년에 시작했지만 개발에 난항을 겪으며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상장을 앞두고 방향성을 재설정해 처음부터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장의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넘은 만큼 배틀그라운드를 활용한 새 게임과 새로운 IP 확장 성과가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프롬바이오 오는 자체 브랜드인 매스티나를 통해 라이프케어 제품을 출시하며 기존 사업 영역인 건강기능식품에서 생활용품 부문까지 사업을 다각화한다고 밝혔다.



프롬바이오의 안티에이징 솔루션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 '매스티나'.

프롬바이오는 지난해 안티에이징 솔루션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 매스티나를 론칭했다.

교촌치킨은 2010년 하니 시리즈 출시 이후 ‘교촌라이스세트’라는 신메뉴를 선보이기까지 7년이 걸릴 정도로 신제품 출시에 신중했지만, 상장을 앞두고는 ‘교촌리얼후라이드’, ‘하니순살’ 등 신제품과 햄버

거, 썩배기 등 다양한 메뉴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매년 상장 심사가 늦춰지며 고배를 마셨던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프랜차이즈업계 최초로 코스피 직상장에 성공하며 성과를 거뒀다. 상장 후에도 가정 간편식(HMR), 수제 맥주 사업에 진출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다.



크래프톤은 이영도 작가 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개발한다.

교촌치킨은 2010년 하니 시리즈 출시 이후 ‘교촌라이스세트’라는 신메뉴를 선보이기까지 7년이 걸릴 정도로 신제품 출시에 신중했지만, 상장을 앞두고는 ‘교촌리얼후라이드’, ‘하니순살’ 등 신제품과 햄버

거, 썩배기 등 다양한 메뉴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매년 상장 심사가 늦춰지며 고배를 마셨던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프랜차이즈업계 최초로 코스피 직상장에 성공하며 성과를 거뒀다. 상장 후에도 가정 간편식(HMR), 수제 맥주 사업에 진출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다.

한 기업 IR 담당자는 “지난 2018년 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청구했을 때 거래소에서는 일부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지적하면서 반려했다”면서 “이후 새로운 사업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자 겨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한 가지 부문에만 집중돼 있으면 업황이 좋지 않을 때 매출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상장폐지까지 우려해야 해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상장 후 계획대로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영지 기자 eom@

## 불친절한 ‘KIND’ 공시정보 10곳 중 3곳 오류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카인드’ ‘기업이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 발생한 오류 수정 안돼 문제 생겨’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체널”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인 ‘카인드’(KIND)의 소개 글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거창한 소개와 달리 영터리 정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피해는 거래소 정보를 받고 투자한 ‘동학개미’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어 우려를 낳는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거래소 KIND에는 총 33곳(스팩제외)의 의무보유 현황(1월~6월 3일)이 공시됐다.

이 중 의무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한 19개 기업의 공시정

보를 비교한 결과, 6곳의 정보가 ‘카인드’와 달랐다. 10곳 중 약 3곳(27%)의 정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오는 3일 보통주 240만 주에 대해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거래소는 이를 264만 주로 집계하며 24만 주에 대해 오차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코람코에너지리츠는 4830만 주에 대해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밝혔지만, 거래소는 이를 4230만 주로 공시하고 있다.

4월 거래소는 하이브 보통주 1374만 4816주에 대한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공시했지만, 회사 측은 1285만6032주라고 공시했다.

3월에는 미래에셋엠스리츠 568만 주에 대해 의무보유 해제 현황을 밝혔지만, 실제 570만 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연테크, 두산중공업 등에서도

한국거래소 집계 수치와 기업 안내 공시가 다르게 나타나 투자자 혼란을 가중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증권사에서 기업의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오류가 수정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증권사 IB(투자은행) 부서에서 기업의 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은 확인과정 없이 즉시 내보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증권사에서 의무보유현황을 잘못 기입하거나 본심사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생겨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단지 기업공시체널에 나타나는 부분만 수치 오류가 발생했을 뿐, 실제 의무보유현황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신뢰가 생명인 한국거래소의 무책임한 해명에 질타가 쏟아진다. 이인아 기자 lih@

## ‘호텔롯데’ 대신 ‘롯데렌탈’ IPO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올 9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목표 日 롯데호텔그룹 주주 지지 없이 경영권 유지 어려운 상황 탈피

신동빈 롯데호텔그룹 회장이 ‘뉴롯데’의 마지막 지배구조 퍼즐 맞추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2조원 규모의 몸값을 자랑하는 롯데렌탈의 기업공개(IPO)가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안팎에서는 롯데렌탈을 시작으로 주요 계열사들의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1일 롯데렌탈은 9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 유가증권시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롯데렌탈의 상장은 롯데호텔의 지배구조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를 통해 한국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지만, 절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호텔롯데에 대한 지배력은 낮다.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 롯데호텔(19.07%)과 일본 롯데호텔스 관계사인 ‘L투자회사’(72.65%)가 대부분을 보유

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롯데호텔(19.07%)과 롯데호텔(19.07%)이 광운사 지분율은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호텔 부회장을 지냈다.

즉, 신 회장은 일본 롯데호텔(19.07%)과 롯데호텔(19.07%)의 다른 주주 지지 없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호텔롯데의 상장이 중요한 이유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끊어낼 수 있어서다. 상장을 통해 일본 내 회사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후 합병 등을 통해 신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롯데의 ‘국적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이에 롯데호텔은 롯데호텔 상장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초됐다. 2016년에는 경영권 분쟁 등으로 상장일정이 미뤄졌고, 2017년에는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상장을 미뤘다.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든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면서 상장은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텔롯데 대신 계열사인 롯데렌탈 상장에 나섰다

추측이다. 특히 롯데렌탈은 호텔롯데가 지분 47.06%를 보유하고 있어서 재무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 2015년 롯데렌탈(당시 KT렌탈)을 인수할 때 재무적투자자(FI)와 5년 만기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FI들이 롯데렌탈 지분 50%를 인수하는 대신 5년 동안 3% 안팎의 수수료료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만기 시 호텔롯데에 지분을 팔거나 롯데렌탈이 상장할 경우 FI가 들고 있는 지분을 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이후 상황이 미뤄지면서 호텔롯데는 FI의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지난달 18일 공시를 통해서 호텔롯데가 레드스타이 보유한 지분 5.02%를 452억 원에 사들인 것도 해당 계약 때문이다. 현재 그로스파트너의 지분 19.61%가 남았다.

관건은 기업가치다. 시장에서는 롯데렌탈의 기업가치를 2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롯데렌탈에 이어 업계 2위인 SK렌터카의 시가총액이 약 6500억 원이고,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카셰어링업체 그린카의 지분가치만 5000억 원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상장한다면 구매매출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롯데호텔 상장 시 지분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손영지 기자 eom@

## 자본연 “투자형 ISA 도입해야”

“투자 자산 비중 확대” 위해 정부의 적극 세제지원 필요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금융투자협회가 이광재 의원실·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연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으로 장기투자 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투자형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ISA의 유형을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형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적은 것으로 봤다. 황 연구위원은 “합리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전체 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투자형 ISA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세수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등)에 투자해 손익통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2016년 3월에 도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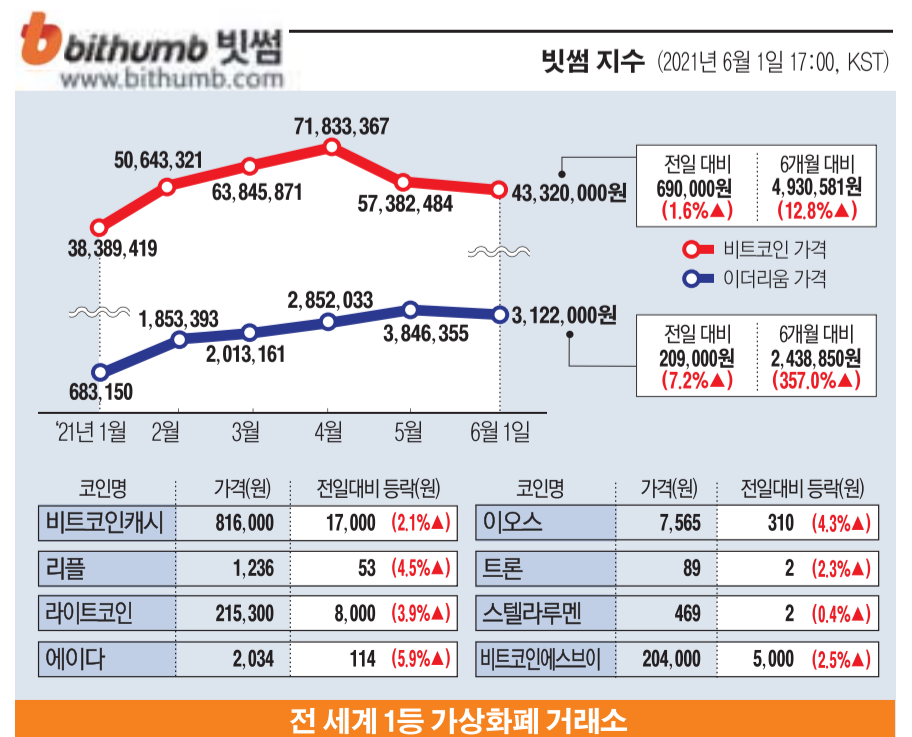
올해 3월말 기준 가입잔고는 7조 8000억원, 계좌수는 191만8000개에 달한다. 제도도입 초기(2016년)에 가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때문에 올해 중 만기(5년)가 대거 도래할 예정이다.

현재 가입계좌 가운데 2021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는 최소 14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제도 도입으로 비과세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삶에 있어 안정적인 자산과 소득을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단타(단기차익거래) 위주보다 ISA투자를 통한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성동구 '주거개선지구 족쇄' 풀렸지만 후속사업 '골머리'

### 금호 1-1·1-2·3-1·응봉구역 4곳, 18년 만에 지정 해제 난개발에 가구수 늘어 사업성 부족...區 "현금청산 가능성" 재개발 놓고 주민 의견 갈려...전문가 "신중하게 투자해야"

'개발할까? 그대로 둘까?'

옛 '주거환경개선지구' 후속사업을 놓고 부동산 소유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거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는데 난개발 후 유증과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선불리 재개발을 추진했다간 원주민도 입주권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금호 1-1·1-2·3-1구역과 응봉구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택 건설·개량, 공공시설 정비 등 지원을 해주는 지역이다. 근거 법안인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법이 폐지된 2003년까지 전국에서 500개 넘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성동구가 이들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해제한 건 사업이 실효성을 잃었다고 판단해서다.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법에 따라 건축법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과 시한인 2007년은 진작 지났다.

실효성 없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 있는 사이 주거 환경은 갈수록 나빠졌다. 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개별 주택 개량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 차원에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외려 건축법 규제 완화로 세워진 다세대·다가구 주택만 난개발로 난립하는 부작용만 낳았다.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된 것도 이런 난개발 우려에서다.

일부 주민들은 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고 재개발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가 선행돼야 해서다. 금호13구역(신금호파크자이), 금호15구역



(e편한세상 금호 파크힐스) 등이 재개발을 거쳐 고가 아파트로 거듭나면서 이런 요구는 더 거세졌다.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후에도 재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밀집해 지은 난개발 후유증 탓이다. 성동구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된 곳 대부분이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토지 넓이나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고려할 때 세대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다.

성동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지역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분양 물량 확보

#### 주거환경개선지구는...

-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태 불량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주택 건설, 건축물 개량, 공공시설 정비, 주민 소득원 개발 등 지원
- 용적률, 건폐율, 일조량 등 건축 규제 완화
- 근거법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폐지로 2003년 지정 중단



오더라도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감수해야 할 것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결정은 주민이 하는 것"이라며 "자칫 투기 세력이 재개발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려는 다른 지역에서도 성동구에서 일어나는 진통이 되풀이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풀렸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을 못 채워 후속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구 수성구 수성1지구는 2013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재개발에 필요한 노후도 요건을 맞추느라 2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로부터 5년이 2019년에야 수성1지구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부동산시장에서 늦게나마 사업이 궤도에 오르 수성1지구는 그래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집값 급등에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층 주거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면서도 "재개발을 추진할 요건을 갖췄는지, 사업성은 있는지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쓴맛 보고도 '공공임대주택' 밀어붙이는 여당

여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집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주택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민주당이 확대 공급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이미 수요자들에게서 실패의 맛을 봤거나 시장에서 아직 검증조차 제대로 안된 것들이어서다.

민주당은 송영길 당대표의 핵심 공약인 누구나집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부지 등을 전국에 2만 가구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과 광주, 경기 화성·파주시 등이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공유형 주

### 송영길표 '누구나집' 2만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안 이달 발표 전문가 "대규모 공급에는 부적합 서민 주거안정 효과 기대 어려워"

택을 말한다. 송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직 때 추진했던 것으로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에 가깝다. 임차인은 집값의 10%만 지불하면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10년 뒤 임차인은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 전환 시 집값 초과 상승분은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

문제는 누구나집이 단 한 번도 대규모로 공급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누

#### 더불어민주당 도입 검토 '공공주택' 개요

	개념	주요 단지
누구나집 (이익공유형주택)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대상 -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 후 최초 공급가로 분양은 임대주택 개념 - 시세 차익은 사업시행자와 공유	인천 영종 '미단시티' (2월 착공, 1098가구 규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고 그 이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공공자주주택' 일종 - L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가 보유 -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공공에 지급	경기 군포 389가구 시범사업 (2007년) 경기 부천 옥길지구 등 (2011~2012년)
지분적립형 주택	- 주택값의 20~25%를 내고 입주한 뒤 공공으로부터 최대 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검토 중)

구나집 시범단지는 지난 2월 착공한 인천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집' 한 곳뿐이다. 또 누구나집 건설을 위해선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임차인에게 최초 분양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면 그만큼 사업자의 이익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직접 손

실 보전을 해주거나 저금리 정책금융 지원 등 간접 지원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공급 부지 확보도 쉽지 않다.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집 부지는 인천도시공사 가 보유한 땅을 매입했다. 민주당은 지자체 소유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민간 주택에 비해 입지나 공급 규모가 뒤질 수

밖에 없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도 대규모 공급 계획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그 대신 분양자는 월세 성격의 토지 임대료를 공공에 지급한다. 이 방식은 취지는 좋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외면받았다.

2007년 경기 군포시에서 분양한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의 청약 최종 경쟁률은 0.1대 1에 그쳤다. 추가 모집에도 90% 이상 미분양됐다. 2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지분적립형 주택 역시 시장에서 검증된 바 없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여당이 꺼내들 누구나집 등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의문인데다 공급 물량도 3만가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서민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대우건설 '세운 푸르지오 그레이비티' 이달 분양

### 총 756실 생활숙박시설 대출규제·전매제한 없어

대우건설은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인 '세운 푸르지오 그레이비티'를 이달 분양한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지'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세운지구 공급 물량이다.

세운 푸르지오 그레이비티는 3-6구역(396실)과 3-7구역(360실) 등 두 개 블록에 조성된다. 총 756실(전용면적 21~50㎡) 규모로, 두 단지 모두 지하 6층~지상 20층으로 지어진다.

도보권에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 3가역과 지하철 1·3·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있다. 주변에 삼일대로·소공로 등도 있어 서울 내 이동이 편리하다.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강남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청계천이 바로 앞에 위치해 서울 한가운데서 수변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남산·종



대우건설 '세운 푸르지오 그레이비티' 투시도.

묘공원·남산골공원·장충단공원 등 녹지 시설도 가까이 있다. 주변에 경복궁·창경궁·덕수궁 등 고궁도 자리하고 있다. 교육 여건도 좋다. 운현초·리라초·송의초 등 명문 사립초교들이 인근에 있다. 세운 푸르지오 그레이비티는 광화문중심업무지구(CBD)의 직주근접 배후지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 주변에는 을지로아트워

의 대우건설, BC카드, KT계열사를 비롯해 SK그룹과 한화그룹, 현대그룹, KEB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의 본사들이 모여 있다. 약 65만 명에 달하는 관련 종사자 수요를 품고 있다는 얘기다. 또 단지 왼쪽으로 광화문 상권, 오른쪽과 남쪽에는 각각 동대문과 명동상권이 형성돼 있다. 종로와 삼청

·익선·인사동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핫플레이스'도 가깝다.

세운 푸르지오 그레이비티와 같은 생활숙박 시설은 오피스텔처럼 취사와 세탁 등이 가능한 반면 주택이 아니어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는데다 대출 규제 및 전매 제한도 받지 않는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롯데건설 첫 지식산업센터 '놀라움 마곡'

### 지하 5층~지상 12층 총 303실

롯데건설은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놀라움'을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

놀라움은 지식을 뜻하는 'knowledge'와 공간의 의미를 가진 접미사 '-um'의 합성어다. 지식이 모이고, 영감을 나누며, 놀라운 창의가 발현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새 브랜드는 이달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분양하는 '놀라움 마곡'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놀라움 마곡은 롯데건설이 처음으로 시행·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로 초대형 업무타운인 마곡지구 인근에 조성된다.

놀라움 마곡은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3만여㎡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281실과 지원시설 22실을 구성된다. 회의실,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모듈형 섹션오피스로 설계돼 원하는 만큼 공간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고, 가변형 벽체를 설치한 형태로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해 작은 면적으로도 활용도를 높



마곡 지식산업센터 '놀라움 마곡' 조감도.

일 수 있다.

도보권에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있고, 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 나루역도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 50만 4000㎡의 대규모 보타니 공원(서울식물원)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식물원 내 마곡유수지 습지생태공원과 맞닿아 있고 공산근린공원이 가깝다.

분양 홍보관은 서울 강서구 양천로 일대에 마련됐다. 홍보관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 3년 감형

### 재판부 “범죄단체 인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 이뤄져”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징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 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 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에 대해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 씨는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두 재판이 병합됐다.

조 씨 측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 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같은 해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형량을 낮추지만 말 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 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자연이 빛은 예술

전국이 초여름날씨를 보인 1일 전남 순천만습지에 푸른 갈대가 갯벌과 어울려 계절의 정취를 전하고 있다. 순천=신태현 기자 holjjak@

## 경실련 “서울시 구청장 16명 시세보다 아파트값 축소 신고”

서울시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이 시세의 56%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발표한 ‘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억5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7억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아파트 신고 재산과 시세 차이를 비교했다.

3월 기준 시세로 계산하면 구청장 16명의 아파트 재산은 신고액보다 100억 원가량 비싼 224억 원이었다. 1인 평균은 14억 원이다. 특히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구청장 3명은 신고액과 시세 간 차이가 10억 원을 웃돌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 보유한 72평형 아파트를 16억60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시세는 32억8000만 원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51%로 나타났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파트 2채 신고액은 18억8000만 원, 시세는 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도 15억1000만 원으로 시세 27억 원보다 11억9000만 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아파트 재산 신고액이 시세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아파트 2채를 4억32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시세는 9억7900만 원으로 시세 대비 44%였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 4억8700만 원도 시세 10억9000만 원의 45% 선이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파트 1채를 2억83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3월 기준 시세는 7억2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신고액이 시세의 39%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시세를 반영 못 하는 공시지가·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 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고 검증능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 대법 ‘뇌물수수’ 김학의 10일 최종 선고

### 1심 ‘무죄’→2심 ‘유죄’ 엇갈려 관심 집중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역대급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에 내려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부동산 시행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법인카드 사용 대금 등 43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1심은 ‘별장 동영상’과 ‘오피스텔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가 뇌물을 주면서 구체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고, 김 전 차관도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해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종용 기자 deep@

##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광고학신(新)론



**광고와 테크놀로지의 결합!**  
광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 ✓ 가격경쟁력이 무의미한 뉴노멀 시대의 마케팅 전략
- ✓ 콘텐츠와 광고의 융합, 신유형 광고와 커머스 세계
- ✓ 4대 매체를 넘어서는 해체형 특성과 미디어 플러닝
- ✓ 디지털 미디어에 적합한 크리에이티브의 핵심 원리

**디지털 시대의 광고학신론**  
김병희, 유승엽 외 공저 | 544쪽 | 28,000원

### 뉴 미디어 시대를 이끄는 생생한 광고 현장의 이야기!

**디지털 시대의 광고 마케팅 기상도**  
김병희 지 | 14,000원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을 위한 광고 마케팅 인사이트

**기업을 살리는 설득의 기술**  
조재형 지 | 14,000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래형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

**광고의 미래 넥스트 10년**  
한국광고학회 편저 | 15,000원

광고학계에서 바라본 최신 광고 키워드와 트렌드

**디지털 변화 속 광고PR 산업**  
한국광고홍보학회 편저 | 17,000원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시대 속 실무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 광고

(주) **한지서** | 02-330-5114 | Fax 02-324-2329 | SINCE 1992

# BEYOND GOLF



현존 드라이버 사상 최대사이즈의 스위트팟 영역

##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C.O.R 0.87 이상의 고반발 드라이버 기준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스윙 2,000번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사이즈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세계 최대의 페이스/스위트팟 넓이를 통해 임팩트시 빗맞아도 최대한 똑바로 가는 타구를 제공
- 아마추어 골퍼의 약점인 슬라이스와 훅이 발생할 확률을 현저히 줄여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할 수 있다
- 총중량 223g-255g의 최경량 수준으로 가볍고 편해서 다루기가 매우 쉬우며 부담감이 없다. 스윙스피드가 빨라져 더 긴 비거리가 나간다.
- 비온드 센터 방문시 PGA프로들이 사용하는 최신의 가장 정확한 실내 분석 시스템으로 고객의 스윙을 정밀 분석 / 비거리에 초점을 둔 1:1 원포인트 레슨 제공
- 런을 극도로 많이 나오게 하는 비온드만의 I.M.T(Impact Maximum Technology)구조로 최대한 스프링을 억제하여 착지 후 다량의 런 발생으로 비거리 상승 효과
- 근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니어층에게 비거리와 방향성을 좌우하는 모든 요소를 극한까지 높인 새로운 성능의 차세대 고반발 드라이버

기존 고반발 클럽보다 더 나간다

비온드는 비거리로 증명합니다



비온드골프 강남점 / 분당점

비온드 센터 방문시 반드시 고객님의 클럽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온드의 "특별한 비거리"를 실감하기 위해 자신의 최대 비거리가 나오는 클럽과 비교하면서 시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결과 10명중 9명이 '비온드'쪽이 더 긴 비거리와 늘어난 런이 나온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

# 국내 로펌 첫 로봇 프로세스 도입 “변화 필요성 느꼈죠”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경영전담변호사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적용 회계 전표 처리 40% 이상 감소 초기 오류 소탕으로 극복...재택근무 화상회의 시스템도 도입

“이제는 로펌문화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준상(사진) 법무법인 화우 경영전담 변호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로펌 최초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소송 업무에 도입한 배경에 대해 “로펌 업무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연수원 23기)는 2013년 법무법인 화우에 영입됐다. 이후 국제중재소송팀 팀장 등을 맡으며 대한상사중재원 및 주요 해외중재기관의 국제중재사건은 물론 국내기업의 해외소송, 해외기업의 국내 소송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4월 RPA를 도입했다. RPA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에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기술이다. 화우는 RPA 도

입을 통해 전자소송 접수, 카드 사용 처리 업무 등 대형 로펌에서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늘 고민했다”며 “RPA 도입으로 매월 약 수천 건 이상 발생하는 회계 전표 처리에 소모되는 업무량을 40% 이상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수작업이 필요한 소송지원 부서의 전자소송 업무에도 이를 적극 도입했다”며 “처음에는 단순 전표처리를 목적으로 RPA를 도입했지만 적용범위를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RPA 정착을 위해 직원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로봇이 처음에는 오류를 내기도 했지만 관련



부서 및 직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이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RPA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시스템도 적극 도입했다.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편의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구축했다”며 “웨비나 형태로 잠재적

인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웨비나)도 수회 개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우 직원이 어느 곳에 있는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도 고민하고 있다”며 “로펌도 보안 이슈가 강조되고 있어 외부의 침입 공격을 더 철저히 막는 보안구축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리걸테크가 앞으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처음에는 문헌검색 기능에 법률가의 관심이 많았지만 현재는 수요자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리걸테크가 이제는 누구든지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와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 형태로 발전하는 방향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리걸테크를 통해 법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고 수행하는 사례가 보다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PP협의회장 강신웅 티캐스트 대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는 1일 서면으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강신웅 티캐스트 대표가 1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PP협의회는 국내 최대 규모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단체다.



강신웅 PP협의회장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제일기획 PD, 삼성영상사업단 PD, 중앙방송 시사팀 및 편성팀장, 이체널과, 티캐스트 총괄상무, 티브로드 대표이사를 거쳐 2010년부터 이체널과 티캐스트, 챔프비전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강신웅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보쉬코리아 사장 알렉스 드리야카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 보쉬가 신임 보쉬코리아 사장으로 알렉스 드리야카(51) 박사를 선임했다.



드리야카 신임 사장은 한국 내 보쉬그룹을 대표해 국내 사업을 총괄한다. 드리야카 사장은 1998년 보쉬그룹에 입사해 호주와 독일, 중국,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및 사업부에서 경영진 직무를 수행해왔다. 호주, 독일, 캐나다에서 화학을 공부했고, 호주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원유니버스 임태현 CTO 영입

와이제이게임즈는 관계사 원유니버스가 블록체인의 AI 전문가 임태현(사진)을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신규 선임된 임태현 CTO는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18년간 넥슨에서 마비노기 개발자를 거쳐 블록체인엔터테인먼트 개발자로서 지냈다. 그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개발, 이더리움 코드 기반의 자체 블록체인 ‘N-Chain’ 개발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고종민 기자 kjm@

## 포스코, 8일까지 ‘글로벌 모범시민 워크’

최정우 회장, 형산강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

포스코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포스코그룹이 진출해 있는 전 세계 53개국에서 ‘2021 글로벌 모범시민 워크’를 진행한다.



201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모범시민 워크는 국내외 포스코그룹의 전 임직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치는 특별 봉사기간이다. 올해 테마는 ‘희망의 온도는 높이고! 지구의 온도는 낮추고!’이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도움이 더욱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 활동과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지역별로 협업해온 자원봉사센터 등 외부 기관과 함께 수채화를 사전에 발굴했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1일 포스코노동

조합 18대 집행부와 함께 포항 형산강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최 회장은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해 수변공원의 조경수를 가꾸고 형산강 주변 정화 활동을 펼쳤다.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해 만든 EM(유용미생물) 휴공을 형산강에 던지는 행사를 가졌다. EM 휴공은 미생물 발효제와 황토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수질정화에 도움을 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삼성호암상, 영광의 얼굴들



호암재단은 1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31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삼성호암상은 삼성을 창업한 호암 이병철 선생의 인재제일과 사회공익 정신을 기리기 위해 1090년 고(故) 이견희 삼성 회장이 제정했다.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허준이(왼쪽부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강봉균 서울대 교수, 공학상 조경현 미국 뉴욕대 교수 가족(대리수상), 사회봉사상 이석로 고려대학교병원 원장 가족(대리수상), 의학상 이대열 미국 존스홉킨스대 특훈교수 가족(대리수상), 예술상 봉준호 영화감독 등 수상자들이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사진제공 호암재단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민수입합탈조사팀장 정신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기획조정관 박연병  
◆기상청 ◇3급 승진 △예보국 총괄예보관 김동준  
◆국토연구원 ◇선임행정원 승진 △행정지원실 전준호 △감사실 김경동 △연구위원 승진 △주택·토지연구본부 송하승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배운경 육동형 최재성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이현주 강민조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대리 ◇1급 행정원 승진 △행정지원실 이호창 △감사실 이성식 △부연구위원 승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백정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오창화 △전문연구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석운 김주훈 조은주 강민석 김명환 △도시연구본부 김태영 이수암 김유란 정은진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오민준 최진도 권건우 ◇3급 행정원 승진 △기획경영본부 유지은 문보배 이세별 ◇주임사무원 승진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황정연 △기획경영본부 김수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미래융합기술본부장 송준광 △기계소재기술센터장 이의종 △신뢰성융합안전기술센터장 김종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경영기획실장 송육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국제협력실장 정재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보임 △기획조정팀장장 심호찬 △사회적가치팀장 정기호  
◆국지연구소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9차 월동연구대장 한세종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5차 월동연구대장 안재우 △연구기획실장 서규현  
◆동양생명 <승진> ◇사업부장 △경기사업부장 최영진 △서울사업부장 이영자 △부산경남사업부장 권용재 ◇팀장 △FC영업팀장 최준훈  
◆ABL생명 ◇승진 △중부BA사업담당 최은실  
◆대신증권 ◇상무보 신규 선임 △Coverage본부장 이정훈  
◆코리에셋투자증권 <승진> ◇전무 △기업투자금융본부 지윤근 ◇상무보 △CRI1실 박재우 △채권금융본부 정하영 △채권금융본부 경규탁 △기업투자금융본부 김지은 ◇이사보 △성장금융실 김동기 △그린에너지금융본부 정광용 △부동산금융팀 김동규 △회계팀 강나미 △종합금융2팀 박상조 △CRI2실 하기봉 ◇부장 △성장금융실 광정화 △유가증권운용팀 이재

인 △CRI2실 송원석  
◆한양증권 <승진> ◇부부장 △S전략투자부부장 민은기 ◇상무 △디지털BIZ센터장 조한영 <본부장 겸임> △FICC본부장 겸 CS본부장 김세중  
◆산은캐피탈 <승진> ◇상무 △기업금융본부장 송성 △리스크관리책임자 전종국  
◆BNK캐피탈 ◇부장 승진 △소매지원부 안태형 △소비자보호부 김선화  
◆한국존스앤드존슨 비전 △대표 엘리자베스 리  
◆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조인원  
◆뉴스1 △경제부장 지영한 △바이오부장 허남영 △사회부장 홍기삼 △사회정책부장 박태정 △전국취재본부장 최경환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 산업부장(부국장) 최석영  
◆CEO스코어데일리 △금융증권부장 유재형  
◆뉴스웨이 △증권팀장 정백현  
◆NEWS 더윈 △논설위원 김인수 황신화 염준호 △편집위원 이향정 박강규 이향정 김인기 김태훈 나중학 △사진부장 장성협 △인전취재본부 사진부장 임수석  
◆프레스맨 △금융부장 성승제  
◆스페셜경제 △부사장 겸 편집국장 강영기

## 부음

‘타잔’ 배우 조라라, 비행기 추락 사망  
TV 시리즈 ‘타잔’으로 이름을 알렸던 배우 조라라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방송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58세인 라라는 29일 탑승객 7명과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미국 테네시주 퍼시프리스트 호수에 추락했다. 비행기에는 그의 부인 그웬 삼블린 라라도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으며,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라는 1989년 TV 드라마 타잔에서 주연을 맡고 후속 시리즈까지 맡았다. 2002년에는 컨트리 음악 활동을 위해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민지선 씨 별세, 송호순·천영(법무법인 광장 변호사)·형성·성열(전 메리츠보험 상무)·성한(두산건설 부장) 씨 모친상 = 1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02-2030-7902  
▲유택영 씨 별세, 김영자(전 연세대학

교 간호대학 동창회장) 씨 남편상, 유기원·기준·미란 씨 부친상, 윤동성(연세의료원장) 씨 장인상 =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02-2227-7550  
▲변용남 씨 별세, 신형욱(한국외대 독일어교육과 교수)·행주·행림 씨 모친상, 유홍성(마란가스 전기감독관)·류명현(대경이앤씨건설 이사) 씨 장모상, 정애리(서울중공동 정치과 원장) 씨 시모상 = 1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4호실, 발인 3일 오전 6시, 02-2030-7909  
▲최복진 씨 별세, 최원상·윤경(목사)·은주(고려대병원 연구원)·원규(조선일보 사회부장)·원집(한의사) 씨 부친상, 김광일(맨투맨서비스 근무)·김희재(피플라이프 팀장) 씨 장인상, 윤영희·곽정현(울촌수석연구원) 씨 시부상 = 5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 발인 3일 오전 7시 15분, 02-3410-6915  
▲안세기 씨 별세, 안재영(uc울산방송국 부장)·재근(농협경북지역본부 농촌지원단장)·재삼(울산 코엔텍 계장) 씨 부친상, 정주영(울산 아음중 교사)·장순선(농협은행 경산여신관리단 팀장)·조명자(코엔텍 대리) 씨 시부상 = 1일, 경북 영주 명품장례문화원 특2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30분, 010-9932-5973

중국 지금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한미기술동맹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

국내 여론에서는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항상 언급되는 보편적인 중국식 외교 레토릭으로 이번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은 한국보다 미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의 시선은 정치외교적인 이슈보다 향후 한·미·일 간 강화될 기술동맹의 심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만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회담으로 평가된다. 외교, 안보, 백신,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미 양국협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및 그 부속서 내용을 보면 지난 4월 열린 미일정상회담 내용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전반적인 공동선언문의 프레임이 같다는 얘기가. 미국이 한일 양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중국 경제의 공동된 입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다행히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민감한 부분의 내용은 거의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여론에서는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항상 언급되는 보편적인 중국식 외교 레토릭으로 이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은 한국보다 미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은 지난 미일정상회담보다 이번 한미회담의 타이완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듯하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타이완 문제에 선을 넘지 않았고, 중국 문제에 대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합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다른 언론매체에서도 관련 보도가 없고, 무엇보다 웨이보, 웨이신, 바이두 등 중국 SNS상에서도 매우 조용한 편이다. 미일정상회담 때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은 정치외교적인 이슈보다 향후 한·미·일 간 강화될 기술동맹의 심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한미 기술동맹을 지켜보는 중국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5G·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영역에서의 한·미·일 기술동맹에 대비하는 분위기이다. 한미 및 미일 공동선언문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인공지능, 5G 및 6G 등 미래핵심기술 협력 확대에 중국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 Ran) 표준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동통신 보안 및 공급업체 다양성' 이슈가 눈에 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핵심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의 5G 및 6G 네트워크를 견제할 한·미·일의 디지털 네트워크 동맹을 의미한다. 개방형 무선접

속망은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 종속성을 탈피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5G 이동통신 핵심기술로 미국이 화웨이, ZTE 등 중국의 5G 네트워크에 대해 구축하고자 하는 기술표준이다. 더욱 강화된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해 중국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일주일 만에 이른바 '중국 최고 과학기술자 3천 명 회의'를 진행했다. 중국 최고의 고위급 과학기술행사로 기존 행사와는 달리 엄중함과 무게감이 느껴진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듯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전원 참석했다. 시진핑 주석은 '미래첨단기술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중국의 자강과 자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정부-이동통신사-통신장비기업들 간 개방형 혁신협력 시스템 구축도 빨라지는 분위기이다. 둘째, 한국과의 기술 및 경제협력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 5G 기술전쟁의 핵심에는 한국이라는 전략적 가치국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중 간 기술 및 경제협력력을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반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대한 긴밀한 협력도 중국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부각시키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그 첫 출발점은 바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립무원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한국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관련 행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올해 초부터 한중 양국 정부 실무진들은 시 주석 방한에 대비해 정상회담 아젠다 설정 및 구체적인 상호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따라 중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이고, 한미 간 기술동맹 및 한중 간 기술협력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축해 나갈지 우리의 고민이 깊어진다.

대방로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소득불평등 개선은 복지국가 이념에 따라 이뤄져 왔다. 이 이념은 일자리와 노동에 기초한다. 국민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유지한다. 그러나 실직, 질병, 재해, 은퇴 등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 보조와 자신의 기여로 마련된 실업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국민연금에 의지하여 삶을 유지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는 공공부조를 통해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준다. 그런데, 현 복지체제는 최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에서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기술 발전으로 말미암아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술의 요체는 생산성 향상이다. 생산성 향상은 동일 노동으로 더 좋고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필연적으로 줄어든다. 그

결과로 근로소득은 산출을 모두 소비하기에는 점점 부족해진다. 근로소득이 줄면 자본소득은 늘어나겠지만 자본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에 집중되어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 경제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기계가 노동 없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러면 기계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시된다. 이 사고 실험 내에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지출을 뒷받침할 어떤 근로소득도 없다. 모든 생산이 자동화되는 현상이 현실에 완전히 구현되지는 않겠지만, 이 사고 실험은 현실에서 근로소득이 점차적이지만 불가피하게 줄어들어서 소비자 지출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재 경향의 극단적 양상이다. 현재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AI의 발전이 일자리를 줄인 것 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AI가

현재의 일자리를 대체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산출에 비해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설사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그 일자리는 이제 더 이상 중산층을 굳건히 뒷받침하던 과거의 안정된 일자리가 아닐 것이다. 불안전 고용이 늘어나는 현실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사실 지금도 좋은 일자리가 없을 뿐이며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농업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일자리 자체는 넘쳐난다. 다시 사고 실험으로 돌아가자. 경제가 완전히 자동화되면 정부는 매년 모든 사람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배분할 수 있다. 정부는 해마다 예상되는 산출물 수준에 맞춰서 바우처를 발행해야 할 것이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소비자 소득이 전부 바우처로 주어지기 때문에 총수요의 100%가 기본소득이

다. 바우처를 균등하게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차별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추가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비근로소득이 주어지지만 산출물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총수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것이 기술 발전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논리적 기초이며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의 지도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사고 실험처럼 상상력을 더 발휘해 보면 논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 현재의 첨단기술사회에서 재원이 마련되어야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없이는 산출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총수요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라 인간이 새로운 생활방식을 택할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이 될 것이다.

☆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명언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라 하리오.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 만한 이는 스승으로 모시노라."
최재우(崔濟愚)에 이은 동학(東學)의 제2세 교주. 조정에 포덕(布德)의 자유, 탐관오리 숙청 등을 요구한 그는 전봉준(全奉準)이 주도한 동학농민운동에 호응해 10만여 병력을 일으켰으나 패배해 처형됐다. 그는 오늘 세상을 하직했다. 1827-1898.
☆ 고사성어 /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다'라는 뜻. 국어(國語) 진어(晉語)에 나온다. '백성은 세 사람을 근본으로 태어났으니 그들 섬기기를 한결같이 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낳아 주시고 스승께서 가르쳐 주시며 임금이 먹여 주신다.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고,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며 가르침이 아니면 알지 못하니 삶에서는 동류(同類)인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을 바쳐 한결같이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하였다."

제도권 밖에서 몸집을 크게 키운 가상화폐 시장의 주무부처가 정해졌다. 금융위원회가 시장 감독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을 주관한다. 워낙 덩치가 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만큼 주무부처 선정에 꽤나 애를 먹었지만 결국 책임자가 정해졌다. 이 말인즉슨 가상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까지는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만난 국회의원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무방비, 무책임, 무대책이라는 3무(無) 정책이 복합된 곳"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은 정부와 정치권에

달렸다.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가 과열됐고 자금세탁의 위험성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로 실체가 확실히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대책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대신 '맹인모상(盲人摸象)' 식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우려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한 국가에서 가상화폐 산업의 가능성은 이미 증명됐다. 2017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정비한 일본에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커 가고 있다. 부동산 구입에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통신·금융회

사들도 가상화폐 산업에 뛰어들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 역시 신기술에 대한 관점에서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나서며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도권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편입하기로 한 이상 이 시장에 대한 금융적 관점에서의 규제와 동시에 산업적 측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길 바란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 대신 부작용만을 집중해서 봤지만, 결국 인터넷은 제조업 이후 IT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가상화폐 시장도 아직은 실체가 뚜렷하지 않지만, 개방적인 태도로 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 시사상식 / NPL
Non-Performing Loan의 약자로 무수익여신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90일 이상 연체된 여신과 출자전환, 재대출, 법정관리·화의 등으로 이자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상환 가능성이 의심 가는 여신을 뜻한다.
☆ 고운 우리말 / 자리끼
밤에 마시려고 잘 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해 두는 물을 말한다.
☆ 유머 / 재치있는 메모
권총 든 은행강도가 직원에게 쪽지를 내밀었다. 그 쪽지엔 '끔찍 말고 내 말 들어! 침착하게 돈을 이 자루에 넣어!'라고 쓰여 있었다. 직원이 재빠르게 메모해 강도에게 주었다. '넥타이나 똑바로 해! 너 지금 사진 찍히고 있다 말야!'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 이준석 돌풍, 정치개혁 신호탄 되길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32세 나이로 최연소 국가수반이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34세 나이에 당선된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39세에 벨기에 총리에 올랐던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이들은 30대 나이에 돌풍을 일으켜 국가수반이 된 인물들이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절대로 국가수반이 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돌풍이 거세게 불면서 정치권에선 세대교체 열풍이 개헌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성정치인이 만든 나이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장유유서 헌법'이라며 개헌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헌법학회가 1일 공개한 헌법학회 회원 설문조사에서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이 개헌론에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회의 정쟁의 벽에 가로 막혀 개헌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개헌론이 이준석 열풍과 맞물려 기성 정치인까지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다. 이번 기회에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을 개헌하길 간절히 바란다.

여야 정쟁으로 헌법이 1987년 개정된

## 데스크칼럼

신동민  
정치경제부장



후 30여 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개헌론까지 거론되는 걸 보니 이준석 열풍이 일각의 주장처럼 잠깐 부는 바람이라고 치부하기엔 과급효과가 크다. 정치권의 세대교체 열풍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1970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맞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40대 기수론'부터 DJ정권 당시 불어닥친 운동권 출신 '386세대' (30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 등장 등 세대교체 열풍은 있었다. 이들의 세대교체는 민주화라는 대의명분에 지역 갈등이나 진보·보수 간 갈등에 기초해 기성 정치인과 손잡고 성장해 기존 정치판을 뒤 흔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준석 열풍은 지역이나 이념 기반이 아닌 20·30세대 지지와 특권으로 물든 기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 등 공정이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30대 청년 이당을 이끄는 미증유(未曾有)의 일이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들

어간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 판세도 뒤 흔들 수 있는 정치 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준석 돌풍은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충격과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이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을까.

아쉬운 점은 기존 정치의 변혁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진 후보들에게 유리한 대표 경선방식인 당원의 표심 70%, 일반 여론조사 30%로 정했기 때문이다.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나오든, 일치하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바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로 바뀌는 건전한 국회 쇄신이다. 기성정치인의 오만과 특권 의식을 탈피하고 진정한 국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이준석 열풍을 단순히 '젊은 트럼프', 포퓰리스트로 비난하기에는 정치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더 크다는 것을 정치권은 각인해야 한다. 청년 정치인 열풍은 우리나라에 만 부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성 정치혐오에 반발해 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참에 기성 정치인들이 자기반성문을 토해 내면서 진정한 정치 개혁의 뜻을 표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까. 함께 꿈꿔 본다. lawsdm@

## 사설

### 4대 그룹 청와대 회동, 한번이라도 소통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4대 그룹의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이들과 따로 회동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초청됐고, 삼성그룹에서는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이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와 산업, 첨단기술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낸 데 기여한 4대 그룹을 치하하고, 한미 간 반도체와 배터리, 5G·6G 등 미래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는 자리로 보인다.

이들 4대 그룹은 글로벌 경쟁력의 우위로 한국을 대표하고 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이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협력기로 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제조기술로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394억 달러(44조 원)의 미국 투자계획도 내놓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기술의 공급망 재편에 공동 보조를 쥐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한국의 입지와 안보를 굳히기 위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여러 차례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은 미·중의 주도권 대립 확대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틈새에 끼인 한국에 복합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갈수록 커진다. 그룹에도 안보와 경제가 따로갈 수 없는 구도의 패권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택할 여지는 좁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를 반드시 한국이 주도해 국익을 키워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대우받는다. 그 힘이 바로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기회를 만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미국이 절실한 반도체·배터리와 첨단 통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어떻게 기술동맹을 맺고, 세계 1위 경쟁력으로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정부가 굳이 지원정책을 떠들 것도 없다. 기업 역량을 믿고, 투자를 가로막으면서 해외로 내쫓는 과도한 규제만 없어도 우리 기업들은 뚝다. 질 좋은 일자리도 저절로 생긴다. 하지만 결집력이 수없이 많다.

국제 정세는 이미 국가 역량을 동원한 총력전으로 외교·안보·경제의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핵심은 첨단산업의 새로운 공급망 질서에서 누구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느냐에 있다. 결국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 대표 기업들은 공급망을 주도할 능력과 혁신 역량을 갖고 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기업 역할을 정부가 더 고민하고, 도울 방법을 실행하면 된다. 그게 안 되는 구조가 문제다.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규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단초(端杻)라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노트북을 열며

김준형  
산업부 차장



### 진짜 1등 구분하는 법

국, 수입자에 걸쭉 모자람이 없는 성능과 내구성, 품질을 갖추게 됐지요.

다양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1등에 관심을 두고는 합니다. 자동차 시장의 베스트셀링카인 현대차 그랜저에 누구나 관심을 두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지요. 수입차 시장에서 언제나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에 대한 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판매를 넘어 다양한 순위 싸움에도 관심이 갑니다. 물론 이런 순위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통계가 존재합니다.

기업으로서 입맛에 맞는, 자사 제품이 유리한 통계 항목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를 앞서워 맹목적인 1위 싸움에 매달리는 것이지요.

일단 '1위'라는 미끼를 던져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이후 1위의 근거를, 그것도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6000만~9000만 원대 수입차 1위나, 특정 연료를 쓰는 소형차 1위, 앞바퀴 굴림 SUV 가운데 1위 등이지요. 이들 모두 보편적이고 타당한 자동차 고르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통계 항목들입니다.

'최초'라는 수식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관련 업계에서 처음이자 1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잘 따져보면 진정한 1등은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1등은 시장에서 그것도 소비자가 선택합니다. 역지로 유리한 통계 기준을 앞세워 자사 제품에 유리한 순위를 뽑아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잘 살펴보면 진짜 1등이 절대 시도하지 않는 마케팅 또는 경영 전략도 존재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진짜 1등은 결코 '비교 시승' 또는 엠블럼을 가려놓고 상품가치를 평가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또 진짜 1등은 결코 다른 회사의 제품을 위탁생산 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탁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은 역시 통계를 앞세워 '해당 분야에서 우리가 1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제 소비자도 눈높이를 올려야 합니다.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이 첨단화한 것처럼 이제 소비자도 이를 평가하는 뚜렷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 래야 기업들이 어설픈 1등 마케팅을 남발하지 않을 테니까요. junior@

## 진료실 풍경

### 당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의사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맞는 나는 다짐을 하나 했다. 환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자, 마치 애인을 만날 때처럼. 여기저기 소독약과 체액 등으로 얼룩진 수술복을 새것으로 갈아입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선다.

나를 만나기 위해 고창, 정읍 등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와 데스크 간호사의 문진과 인턴 선생님의 초진을 거쳐 족히 1시간을 넘게 대기한 환자들에게 나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겠다, 아니 보여야 한다고 다짐한다. 다른 과(科)와 달리 산부인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은 의사를 만나기 전 특별히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온다. 전날 저녁 샤워할 때부터 회음부 등의 청결을 관리하고 걸은 물은 속옷까지 가장 깔끔한 것으로 챙겨 입는다. 이렇게 많은 준비와 기다림을 거친 그녀에게 나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병실이나 응급실 환자를 진료할 때와

달리 외래에서의 진료는 의사의 실력 못지않게 외모나 옷차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예쁨과 멋있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의 문제이다. 잦은 당직과 과중한 업무로 언제 같이입었는지 가늠하기 힘든 지저분한 수술복에 막 자고 일어난 것 같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환자들을 만났던, 전공의 시절의 나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오늘 나는 반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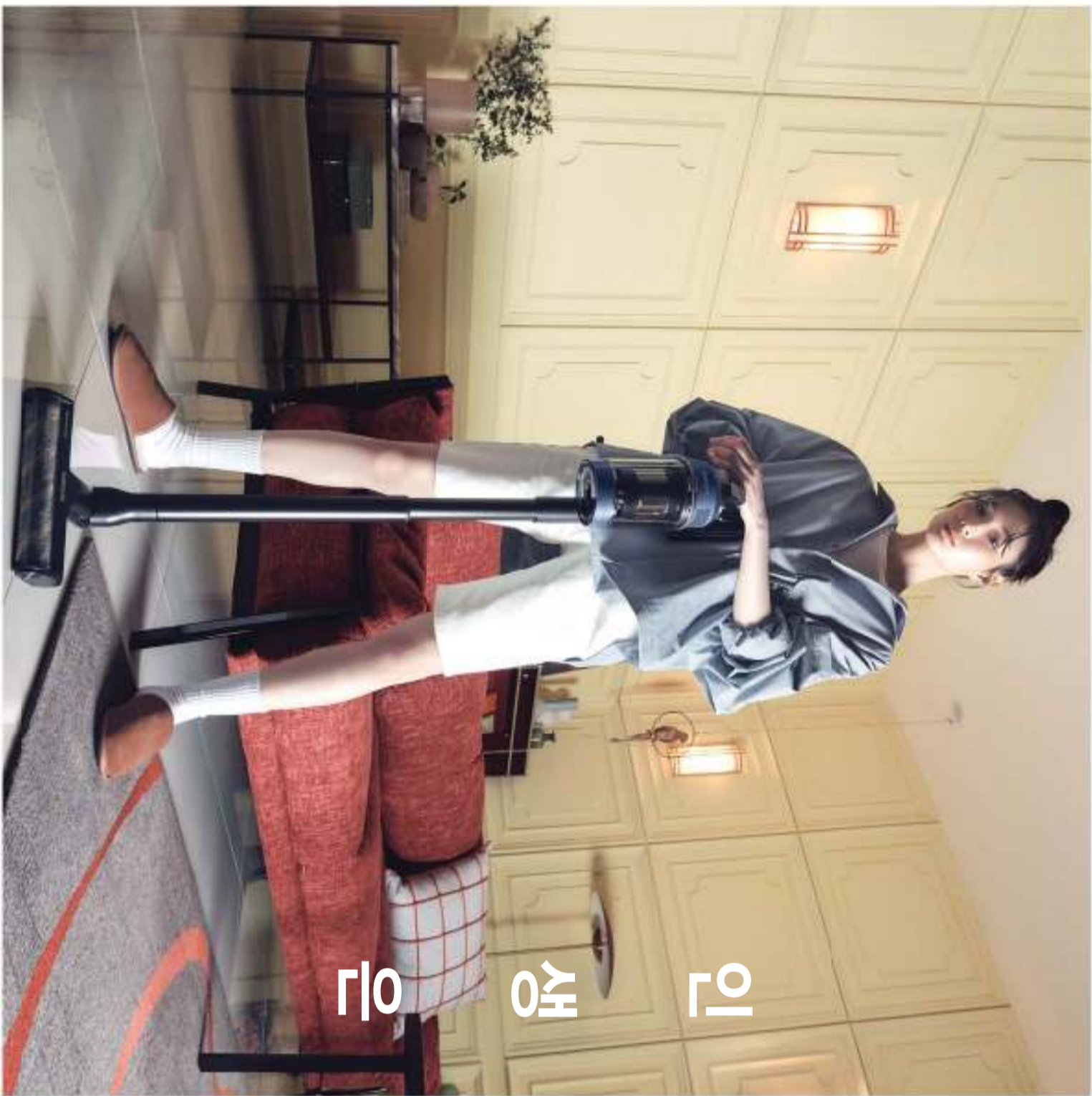
두꺼운 전공 서적을 달달 외우고 효과적인 봉합술을 익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환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이 기본적인 관계의 기술을 나는 전문의가 되고서 이제야 깨달았다. 아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오늘 아침 나는 오전 진료를 위해,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칼을 차분하게 정리한 뒤 은은한 향수 한 방울을 더해 당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한다. 홍유미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의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SAMSUNG



인생의



적진

제트만의 일직선 먼지배출 구조로  
먼지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비워주니까

제트니까 제트답게.

가전을 나답게.

BESPOKE 제트

